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제271호 | 2016년 11월
www.snuaa.org
news@snuaa.org

SNU Alumni Association USA |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 Tel: 484-344-5500 Fax: 484-342-0222 | 발행인: 손재옥 편집인: 김정현

모교 홈커밍데이 미주동문 30명 참여

2박 3일 동안 총동창회가 제공하는 서울관광, 규장각 방문등 즐겨

10월 16일(일) 개교 70주년을 맞아 제 37차 서울대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렸다. 걷기대회부터 놀이마당, 축하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풍성하게 꾸려졌다. 모교 총동창회와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모교 연극회, 공대, 간호대, 농대 등 3천여 동문이 참여했다. 특히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온 미주동창회가 있었기에 더욱 뜻 깊은 행사였다.

오전 9시에 대운동장에 모인 동문들은 서로 살갑게 인사를 나눴다. 1부는 교내 걷기대회로 시작됐는데 모두가 모교 관악캠퍼스를 걸으며 찬찬히 둘러보며 지난 학창세월을 그리워하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졌다. 대운동장 앞 농구장에서 시작된 발걸음은 본부 앞 잔디밭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에 미주동문들도 참가해 모두가 대학시절로 돌아간 듯 활발하게 놀이마당을 즐겼다.

계속 걸어 올라가 도착한 버들골에는 식사가 준비돼있었다. 각자 플래카드가 걸린 천막 아래 앉아 총동창회가 마련한 도시락을 먹었다. 버들골 중앙에는 풍선아트를 하는 삐에로들이 서있었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온 손주들은 페이스페인팅을 했고 가족들이 다 함께 훌라후프 내기를 하기도 했다. 돌림판을 돌려 경품을 받거나 다트를 맞추지 못해 아쉬워하는 등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3부는 축하행사로 시작했다.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서정화 총동창회장은 "3천여 분의 동문이 모여 더욱 성대한 홈커밍데이가 됐다"며 "특히 멀리 미국에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미주총동창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바쁜 일정에도 행사에 참석한 나경원(법대82) 의원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서울대 동문들이 국가대표"라고 강조했다. 축사순서가 끝나고 따로 시간을 내 미주총동창회 동문들이 단상에 올라 행사에 모인 모든 동문들과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뚝딱이 아빠 김종석씨의 진행으로 모교 홈커밍데이를 축하하는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이 계속됐다. 축하공연의 시작을 알린 서울대 응원단은 "자랑스러운 서울대 선배님들 앞에서 공연을 해 기쁘다"며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관악을 보게 하라'는 주제가에 맞춰 치어리딩을 했다. 뉴욕에서 온 이전구(농대62) 미주동창회 전 회장도 멋진 하모니카 연주로 자리를 빛냈다. 무대 앞에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영어로 축복의 말을 건네며 뉴욕에 꼭 와보라는 환영도 아끼지 않았다.

비가 그치지 않는 날씨에도 모교 성악과 남성중창단과 씨니어 합창단의 멋진 선율에 모두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오히려 남녀노소 없이 모두가 무대에 올라와 흥겨운 노래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기도 했다. 다수의 추첨을 통해 동문들에게 여러 상품이 주어졌는데 서정화 회장이 협찬한 승용차 외에도 다양한 협찬품과 풍성한 협찬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모교 동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던 행사였다. 오후에 버들골에서의 축하행사가 끝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뒤 호암교수회관에서 미주동창회 동문들끼리 따로 모교 본부에서 마련한 저녁식사를 나눴다. 이형균 총동창회 부회장도 동석해 좋은 시간을 공유했다. 특히 이형균 부회장이 먼저 "이 멤버, 리멤버, 포에버!"라는 건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모인 이 멤버 그대로 서롤 기억하며 영원하자는 의미에 함께 앉은 미주동문들 모두 함박웃음을 지었다.

(4면에 기사 계속)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을 갖습니다.

1 홈커밍데이
2 문유미- 한국사 연구/ 김병연- 먼저 온 통일
3-4 인터뷰: 김성근/ 모교소식: 개교70주년/ 시흥캠퍼스
5 동문동정: 신승일/ 권영민/ 이영묵/ 최성록
6-7 홈커밍: 화보/ 소감/ 소식
8-10 지부소개: 뉴잉글랜드/ 홍선애 전시회/ 뉴욕
11-12 뉴욕/ 남가주/ 코네티컷/ 시애틀/ 부고: 한은재
13-15 필라/ DC/ 조지아/ 뉴잉글랜드/ 샌디에고
16-17 특집: 'Brain Freeze'
18 남가주/ 이은종-피리
19 이종호- 노년고독/ 건강: 깜빡깜빡
20 미술: 이선화- 세잔의 사과/ 신간: 고영주
21 김인종- 밥 딜런/ 수필: 강신용- 레드라인
23 50일간의 세계 일주
24 독자의 광장/ 김창수- 칵테일 상식 6/ 시: 서윤석
25 이달의 사진 김영덕/ 영화: 이수영 시네마 천국

한국사 연구, 좁은 시야 탓 서구 학계와 불통

문유미(사회대 85)

스탠퍼드대 문유미 교수(사회대 외교학과 85, 한국 근대사)가 국내 한국 근대사 연구자들의 편협한 시야 탓에 세계 학계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 근대사가 일본·청 제국사의 하위 분야로 왜소화될 우려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펴내는 '현대사광장' 7호에 실린 '사건사와 일국사를 넘어서'란 기고를 통해 구미 학계의 주요 한국 근대사 연구 업적을 검토하며 국내 역사학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문 교수는 일본의 침략과 조선의 저항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시각과 일본을 통한 자본주의적 제도의 도입에 초점을 두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협애한 논쟁 구도에 매몰됨으로써 개항기 조선과 한국 식민지화 과정에 대한 구미 학계의 주요 논점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민족주의적 역사 서술이 구미 연구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일본·청제국사 연구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에 따르면, 힐러리 콘로이 교수는 '일본의 한국지배정책사'(1960)에서 메이지 일본의 지도자들이 대한(對韓) 정책에서 한국의 개혁과 일본의 안보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토 히로부미 등이 한국의 개화에 친화적이고 양국에 호혜적인 정책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피터 두스 교수는 '주판과 칼: 일본의 한국 침투'(1995)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선 내부에 능력 있고 믿을 만한 개혁 세력의 부재가 일본의 조선 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커크 라슨 교수는 '전통, 조약, 그리고 무역: 청제국주의와 조선 (2008)' 에서 1880년대부터 청일전쟁까지 청나라는 조선과의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근대적인 제국과 종속국의 지배 관계로 재편하고자 했으며 사실상 이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문유미 교수는 "이런 연구 경향이 계속되면 세계 학계의 역사 서술에서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조선인들의 경험과 조선 사회의 내적 맥락은 희석되고 제국의 논리가 중심이 돼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연구자들이 실증을 뛰어넘는 이론적 접근을 모색해야 하고, 일본·중국 근대사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여 한국사와 접목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일진회에 관한 논문으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부터 스탠퍼드대 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조선일보〉

'먼저 온 통일'은 성공했나

김병연(사회대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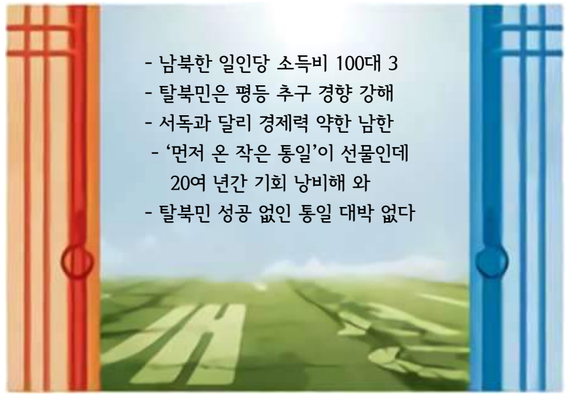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을 향해 자유로운 남한으로 오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온 통일'에 성공하고 있을까. 지금까지의 통계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

2014~2015년 탈북민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49만원으로 남한 주민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3만 명의 탈북민이 남한에 왔지만 이 중 2000여 명은 남한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남한 소재 탈북민의 55%, 즉 1만5000명 가량이 취업해 있지만 4000명은 정부가 임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나머지 1만1000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공기업·사회적기업에서 일하거나 북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0~2015년 남한 전체의 평균 실업률은 3.4%인 데 반해 탈북민의 실업률은 8.3%였다. 만약 정부와 우리 사회의 각종 지원이 없다면 탈북민의 실업률은 50%를 넘을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지원 위주의 정책은 탈북민의 숫자가 수만 명 정도일 때만 작동될 수 있다. 만약 남한에 오라고 한 대통령의 말을 믿고 한 해 10만 명의 북한 주민이 들어온다면 1인 세대 기준 기본정착금 700만원과 주거지원금 1300만원만으로 총 2조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다 의료비·교육비·국민연금·취업 관련 비용과 기초생활보장금을 더하고 행정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현재와 같은 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 나아가 '더 큰 통일'이 갑자기 올 경우 남한의 재정으로 지금 정책을 감당할 수 없다.

남한 주민과 스스로 경쟁해 취업할 수 있는 탈북민이 다수가 돼야 '먼저 온 통일'이 성공한 것이다. '앞으로 올 통일' 또한 잘 준비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탈북민의 인적 자본 수준이 높아지고 그들이 남한의 시장경제 규범에 잘 동화돼야만 한다.

이는 단순히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양질의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쌓여야 가능하다. 이를 통해 어떤 교육과 직업 훈련을 어느 연령대의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지, 가치 규범의 동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



독일 통일에 3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근본적 이유도 동·서독 주민 사이의 인적 자본 격차 때문이었다. 흔히 생각하듯 동·서독의 화폐 교환 비율이 1대 1로 정해졌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 교환 비율이 어떻든 임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 이상으로 월급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협약 때문에 서독 근로자 생산성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독 근로자가 서독 근로자 임금의 60%를 받게 되면서 기업이 파산하고 통일 비용이 급증했다. 하지만 임금협약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동독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너무 작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방식의 복지 혜택이 필요했을 것이다.

남북한의 일인당 소득 비율이 100대 3이라는 사실은 남북한 주민의 인적 자본 차이가 동·서독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의미다. 북한 학생들의 영양 결핍과 잦은 노력 동원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 학교 커리큘럼은 인적 자본 축적에 오히려 해가 되는 '주체사상' 학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인적 자본의 격차를 신속히 줄이지 못한다면 '더 큰 통일'이 왔을 때 우리는 크게 실패할 것이다.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도 크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들이 중심이 돼 최근 미국 비교경제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탈북민은 일률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탈북민 중에서 남한에 와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쟁을 더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학생들이 남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남한 학생들과의 수준 차이를 깊이 느껴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대로 둔다면 남한에서의 학교 교육이 경쟁해서 취업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포기하고 복지 혜택을 받는 쪽으로 끝날 가능성마저 있다.

신(神)은 우리에게 '먼저 온 작은 통일'을 선물로 주셨다. 서독과 달리 경제력이 약한 남한이 이를 이용해 '앞에 올 더 큰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회를 낭비해 왔다. 탈북민이 급증한 1990년대 후반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한 해에 수천억원의 돈만 썼을 뿐 연구에 기반한 정책 개발은 등한시했다.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 준비의 핵심이다. '먼저 온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통일 대박도 없고 대북 압박도 없다. 단지 말만 많을 뿐이다.

김병연 경제학부 교수
〈사회대 경제학과 85, 중앙일보〉

[인터뷰]

'노벨상에 근접한 학자' 언급하는데, 내가 보기엔 없다'

김성근 자연과학대학장 (자연대 76, 사진 좌)을
김진국 (사회대 78, 사진 우) 중앙일보 대기자가 인터뷰했다.

그는 걱정부터 늘어놨다. 왜 한국은 노벨상을 못 받는지 비난할 책임자를 찾아내려는 거라고 지레짐작한 듯했다. 그래서 '용의자 찾기'를 위해 발언이 곡해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과학자로서 마치 골을 못 넣은 축구선수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염려하는 것 같았다.

김성근(자연대76, 사진) 모교 자연과학대학장은 2006년 교육부가 선정한 제1회 국가석학이다.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는 화학과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영국왕립화학회 펠로이고 유명 국제학술지 4곳의 이사도 맡고 있다.

그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에 대한 궁금증부터 물었다. 그는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환경에 그 역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 강조했다. "노벨상을 꼭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질의 : 노벨상 계절에만 보이는 관심이 부담스럽죠.

응답 :"노벨상 발표 때가 되면 언론사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대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못하느냐, 알고도 못하느냐. 후자입니다. 뼈아프지만 우리 스스로 자성·성찰이 필요합니다."

질의 : 노벨상 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응답 :"노벨상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노벨상이 나오는 토양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노벨상 수상은 결과일 뿐이죠. 수상자가 나올 수 있는 나라와 나올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후자에 속합니다. 기초가 안 되었다는 거죠. 노벨상을 탈 거냐, 말 거냐, 탈 거면 언제 탈 거냐, 누가 탈 거냐, 거기에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구 누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질의 : 왜 그런가요.

응답 :"노벨상이 단지 연구개발 투자만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나라 전체가 기초를 다져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죠. 또 축구선수가 골을 못 넣은 게 문제부가 책임질 일이 아닌 것처럼 노벨상을 못 탄 것도 미래부 책임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과학자 책임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도, 언론도, 그런 환경을 만든 국민도 책임이 있습니다."

질의 : 노벨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네요.

응답 :"노벨상은 여러 가지 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탈 만한 사람이 다 타지는 못했지만 탄 사람 가운데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질의 : 서울대 자연대가 세계 20위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응답 :"서울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수준이 눈부시게 성장해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때 화학과 졸업생 29명 가운데 25명이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국내에서는 공부할 수가 없어서였죠. 그런데 이제는 공부를 아주 잘해도 유학을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여건이 갖춰져 있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질의 : 1989년 서울대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만 해도 시설이 부족해 다른 연구실로 학생들을 데려가 실험을 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응답 :"연구자들에게 연구비가 충분하냐고 물으면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하죠. 이제 서울대 같은 곳에서는 연구비나 시설이 모자라서 연구를 못한다는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해 연구를 못한다는 편이 좀 더 솔직한 고백이겠지요."

질의 : 세계적 연구 흐름에서 떨어질 염려는 없나요.

응답 :"인터넷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e메일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학회에는 또 얼마나 자주 갑니까. 개인의 능력이고 역량이지 그건 핑계가 안 됩니다."

질의 : 연구비를 단기 성과 위주로 지원하니 장기 과제를 연구할 수 없다는 불만도 있던데.

응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비는 절대로 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지난해 19조1000억원을 썼습니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총량은 충분한데 포트폴리오가 잘못돼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주도로 나갑니다. 하향식이죠. 정부에서 '어느 쪽에 투자하니까 여기로 모여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계 선진국 어디를 가더라도 기초과학을 포함한 공학과 의학 등의 기초 연구는 상향식입니다. '이런 연구를 할 테니 지원해 달라.' 정부가 너무 앞장섭니다, 우리는 알파고가 터지면 '인공지능(AI)에 수천억원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질의 :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응답 :"20조원 가까운 연구비가 대부분 하향식입니다. 과장이건 실·국장이건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이고 1년도 안 돼 바뀌는 자리라 공무원들은 실적에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을 좇을 수밖에 없고. 한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질의 :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응답 :"지난 3월 알파고의 반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만의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유행에 민감하다고 할까,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AI가 나온 것은 40년 전입니다. 그 사이 몇 번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 AI 기반이 약하냐고 물으면 바로 기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초로 가야 할 돈이 다 AI로, 가상현실로 투자됩니다. AI와 가상현실에 외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더 앞서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따라가는 거죠. 외국은 기초를 다하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위에서 '이게 유망하다'며 갈 길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한 3년 뒤 만약 AI가 별 볼일 없다, 전혀 다른 게 뜬다고 하면 또 그거 하자고 할 겁니다. 지금 기초를 깔아놓으면 그때도 할 여력이 되는데 계속 따라만 가는 거죠."

질의 : 해외 석학들을 초청해 서울대 자연대의 연구역량을 평가받았죠.

응답 :"2005년 오세정 학장 때 제가 기획부학장 하면서 처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군 대학들끼리만 수년마다 품앗이로 평가해 줍니다. 아래 등급 대학은 부탁해도 안 해줍니다. 우리도 이너서클에 들어가려고 추진했는데 선뜻 응해줘 놀랐습니다. 많은 학과들이 하버드·MIT·스탠퍼드 등 최고명문대학에서 위원들을 모셨습니다. 일주일을 머무르며 자세히 평가해 주고 갔는데 앞으로 자기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한 거죠. 10년이 지나 얼마나 질적 발전이 있는지 보기 위해 다시 해본 겁니다."

해외 석학 12명은 서울대 자연대의 문제점으로 경직된 교수 채용 시스템,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연구 풍토, 원로 교수가 퇴직하며 자기 전공 분야의 복사판 후임을 임용하고 떠나는 관행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

"가장 잘못된 말이 '노벨상에 근접한 한국인 학자'입니다. 노벨상은 기록경기가 아닙니다. 100m를 9초7에 달리느냐, 9초8에 달리느냐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육상 경기종목을 만들어야 주는 겁니다. '노벨상에 근접한 한국인 학자를 수배해 봐라. 그 사람들을 지원하면 타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명문대에서 연구비 수십억원을 굴리는 사람보다 지방의 이름 없는 교수 가운데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중에서 나올 가능성 큽니다. 지금 잘나가는 교수에게 투자할 게 아니라 30대 교수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는 연구비를 많이 타는 교수의 공통점은 해외 연구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성낙인 총장이 기초연구 분야 젊은 학자에게 1년에 1억원씩 9년 동안 투자하는 '창의선도 신진과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질의 : 기업체는 실용성을 강조하지 않나요.

응답 :"당연하죠. 말 그대로 기초라는 건 당장의 사용처를 생각하지 않고 궁극적인 호기심으로 하는 연구니까요. 그래도 무서운 점은 언젠가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MIT 어느교수가 40년 전 터치 패널을 연구했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없었다면 터치 패드가 있었겠습니까. 왜 연구했겠습니까. 정부가 '40년 뒤 이런 수요가 있을 테니 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정부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S BOX] "서울대가 키워내는 동질한 인간만으론 노벨상 어림 없어"

김성근 학장에게 노벨상을 받는 길을 물었다. 먼저 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과학이나 국가의 장기적 프로젝트에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 부정이 있지 않는 다음에야. 정권이 바뀌건 공무원이 바뀌건 기초과학 연구는 10년, 20년 긴 호흡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당장 노벨상이 안 나온다고 정책을 이리저리 바꾸고 과학자들은 그런 정부가 잘못했다고만 하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창의적 연구를 할까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 다양성을 강조했다.

"다양성이 뭐냐. '이탈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데 거기서 튀는 아이들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북돋워줘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잘라버립니다. 지금처럼 서울대가 키워내는 동질한 인간들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는 세계 어디를 가도 어느 레스토랑이나 손님마다 메뉴판을 주는데 한국에서는 몇 개만 준다고 했다. 대개 윗사람에 맞춰 통일된 메뉴를 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양성은 우리 문화에서 계속 제거돼 왔습니다. 이제 그걸 풀 때가 됐습니다. 식당에서부터 각자 먹고 싶은 걸 시켜야죠. 연구 과제도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기초 연구의 지능 체계는 다양성의 인정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는 토론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교 70년을 맞은 서울대가 시설과 사람은 바뀌었는데 교육 방식은 안 바뀌었습니다. 교수가 일방적인 강의를 하고, 칠판에 쓰고, 질문하라면 안 하고…. 받아 적어 암기하고, 성적 잘 나오면 똑똑한 줄 착각하고 졸업합니다. 토론해야 합니다. 교수의 일방적 지시와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고, 젊은이들도 목소리를 내고, 자기 길을 가고, 다양성도 살아납니다. 도전적인 질문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앙일보〉

모교 소식 SNU NEWS

개교 70주년

모교 공대(학장 이건우)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모교 공대를 졸업한 박사들 중, 우수한 업적을 달성하고 산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 70인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한 기념식은 17일 오후 12시에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310동에서 개최됐다.

이를 위해 서울대 공대에서는 지난 2월부터 계획안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7,649명의 박사 졸업생들의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각 학부, 학과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모든 자료를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빛내는 70인의 서울공대 박사'로 선정된 이들은 모두 교육 분야 32명, 산업 분야 27명, 연구 및 기타 분야 11명으로 총 70명이다.

교육 분야 주요 선정자는 김헌영 강원대 총장(기계설계학 박사, 91년 졸업)과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건축학 박사, 89년 졸업)이다. 김헌영 총장은 산학컨소시엄 강원지역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강원도 내 산업체·연구기관·정부부처와의 컨소시엄 체계를 구축, R&D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사업을 지원했다.

또한 김봉렬 총장은 불교 건축전문가로서, 도서 (한국의 건축)을 출간 후 지속적으로 한국 건축 문화에 대한 저서 및 작품을 해외에서 발표했다.

산업 분야 주요 선정자는 경계현 삼성전자 부사장(제어계측공학 박사, 94년 졸업), 안승권 LG전자 사장(전자공학 박사, 92년 졸업),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대표이사(제어계측공학 박사, 89년 졸업) 등이다. 경계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메모리 반도체 DRAM의 주력 제품인 DDR2, DDR3 DRAM의 개발과 더불어, 2013년 7월에는 세계 최초 3차원 입체 형태의 VNAND를 개발했다. 안승권 LG전자 사장은 통신·모바일 등 전기전자분야의 기초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했으며, 현재는 그룹 내 R&D 조직을 총괄하는 CTO 및 기술협의회 의장직을 역임 중이다.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대표이사는 1996년 세계에서 3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디지털 위성 방송용 셋톱박스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 및 기타 분야 주요 선정자는 임기철 국가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공업화학 박사, 90년 졸업), 김인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원자핵공학, 88년 졸업) 등이 있다. 임기철 명예연구위원은 前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설치를 주도하면서 과학기술정책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김인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군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유도탄 탄두와 탄약체계 개발을 주도하여 세계적 수준의 고폭화약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모교 시흥캠퍼스 4차 산업혁명 허브로

AI·자율주행차·드론·로봇·빅데이터 5대 연구 공대 석·박사 인력 주축…단과대 이전 안해

서울대가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추진 중인 시흥캠퍼스를 4차 산업시대 혁명에 대비한 공대 석·박사급 연구 인력과 신진 학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학교 측 '시흥 제2캠퍼스' 설립안에 반발해 본관을 점거한 채 시위 중인 학생들 염려와 달리 기숙대학이나 특정 단과대학 이전 등은 청사진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주요 기업 엔지니어와 900명에 육박하는 외국 교수, 서울대 출신 연구자들이 함께 어울려 자율주행차 드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연구하는 '미국 실리콘밸리형 산학 융·복합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단 고위 관계자는 "현 관악 캠퍼스 내 특정 단과대학이나 기존 연구소를 이동시킬 계획은 없다"며 "대신 융·복합 연구나 산학협력을 위한 확장 개념의 '제2공간'으로 시흥 캠퍼스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추진했던 전인교육형 기숙대학 조성과 특정 단과대학 이전 등은 계획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시흥캠퍼스에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융·복합 연구 시설을 구축하고 젊은 연구 인력들을 확충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현재 2026명인 교수 인력도 2025년까지 총 28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시흥캠퍼스를 '글로벌 캠퍼스'로 조성해 현재 230명에 불과한 외국인 교수도 900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런 교수 확보를 위한 연구실과 숙소 건설에만 지금보다 70만5594㎡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서울대 측 계산이다

학교 측은 특히 시흥캠퍼스에 △AI·자율주행차 △드론·로봇 △빅데이터 △조선해양 △바이오·메디컬 등 차세대 산업 분야를 축으로 한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지난 7월 해당 분야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직접 학교 측에 제안했고, 본부 측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이 같은 시흥캠퍼스 추진안 수립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박3일간 팰로앨토, 쿠퍼티노 등 미국 실리콘밸리를 샅샅이 훑어보기도 했다.

100% 전기차 테슬라 모델S를 타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들을 방문하고 현지 한국인들과 혁신 문화에 대해 토론했다.

당시 성 총장은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대학이, 특히 한국 대표 대학인 서울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나 자신도 회의적"이라며 "서울대 혁신도 그 방향으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서울대 공대 기획부학장은 "최근 중국에 가보니 칭화대와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한 수 아래로 여겼던 베이징대 반도체 장비가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서울대는 장비가 노후화됐지만 중국 대학은 새로 도입했고 서울대가 없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요청을 의뢰한 적도 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이미 기술력에서 유럽 등 경쟁국들보다 한참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오는 자율주행차 연구도 연구시설 확충이 시급한 분야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용지 확보가 가장 큰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서승우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센터 교수는 "관악캠퍼스의 연구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면서 "관악캠퍼스에는 현재 실험용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험을 진행하거나 차를 손볼 장소도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1면의 계속)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웃긴 농담도 나누고 한국에서의 이번 행사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미주동창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홈커밍데이 이전에 진행한 시티투어 얘기가 나오자 어릴 적 기억들도 새록새록 꺼내졌다. 손재옥 회장은 "어렸을 때 창덕궁 옆에서 살았는데 자주 거기에 가보지 못했다"며 "이번 투어를 하며 왜 한국을 더 둘러보지 않았던 걸까 아쉬움도 남았다"고 전했다. 다들 옛 비원에 대한 얘기, 오랜만에 가본 경복궁과 많이 달라진 서울에 대한 감상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어떻게 외국에 사는 동문들의 모임을 활성화할지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박승희 사무총장은 "미국의 경우 거리가 멀고 오는 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여러 용무를 보기 위해 올 때가 많다"며 "다음 평의원회의는 최소 6개월 전에 알려서 스케줄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식사가 끝날 때쯤 LA에서 온 동문들이 타 대학에 비해 졸업생에게 인색한 모교의 복리후생에 대해 건의했다. 부부 건강검진에 대한 졸업생 할인이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서울대인만큼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 동문들을 포용하자는 토의가 오고 갔다. 함께 모여 흥겨운 시간을 나누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이번 홈커밍데이는 앞으로 미주동창회의 돈독한 우정과 발전에 필요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김지윤(생명과학 11) 대학신문 기자〉

동문 동정 SNU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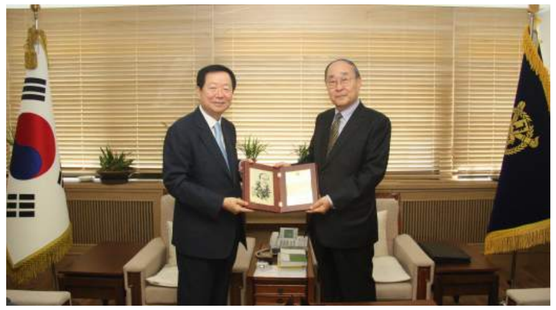
신승일 동문, 서울대 '암곡학술기금' 10억원 쾌척

세계적인 생명과학자이자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승일(78, 화학과 1957년 입학·3년 수료) 동문이 서울대학교 '암곡학술기금' 10억원을 쾌척했다.

2016년 9월 19일(월) 서울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과 신승일 동문을 비롯해 조완규 前총장, 손봉호 사범대 명예교수, 이주형 인문대 학장, 김성근 자연대 학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성낙인 총장은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로 모교의 위상을 드높이신 신승일 동문님은 평소에도 배려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시며 지식인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계신다"며 "이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승일 동문은 "동문으로 먼 타국에 있었지만 모교와 대한민국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지금의 내가 있기에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와 서울대에서 싹튼 학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동료로 함께 일하며 도와주신 고국의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회고한 뒤 "21세기 문명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지식인이 당면한 과제에 도전하는 데 초석을 다지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새로운 인류문명의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추구하는 학문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를 통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선물 받게 돼 오히려 감사하다"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신승일 동문은 생화학·세포유전학·면역학 등 생명과학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로 UNDP(유엔개발계획)가 설립한 국제백신연구소를 서울대에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생명과학 발전과 산업화에 적극 참여했다.

1961년 서울대 3년 수료 후 미국에서 학사, 석박사 학위를 받은 신 동문은 네덜란드 라이덴 국립대 유전학 연구소 연구원, 런던 국립의학연구소 펠로우, 스위스 바젤면역학연구소 창립 선임연구원, 뉴욕 알버트아인슈타인의과대 유전학과 교수, 서울대 자연대 초빙교수, UNDP 수석보건자문관 등으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원과 대학 교수 직을 역임했다. 또한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한 셀트리온을 2002년 한미합작회사로 기획하고 공동창업한 주역이기도 하다.

신승일 동문은 2011년 서울사대부고에 장학금 5억원을 기탁해 '신승일 장학재단'을 설립, 원주중학교에도 10억원의 장학기금으로 '암곡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신 동문은 서울대 선한 인재 장학금, 서울사대부고 발전기금에도 꾸준히 기부하며 모교 발전을 후원하고 있다.

'암곡학술기금'은 신승일 동문 부친의 호를 따 명명 됐으며, 서울대학교는 신 동문의 뜻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인문학 소양을 갖춘 과학자와 현대과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인문학자를 양성하고, 새로운 한국적 지식인의 표상을 정립하여 과학과 인문학의 접목을 추구하는 학문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권영민 교수 UC 버클리에 도서 1만2천권 기증

권영민 교수 (문리대 국문학과 67, UC버클리 한국문학 초빙교수)가 평생동안 모은 도서 1만2천여권을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East Asian Library)에 기증했다.

UC버클리 동아시아도서관의 장재용 한국 담당사서는 13일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권영민 교수의 기증도서중 9,500권은 지난 9월초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도서는 내년초에 운송해 올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동아시아도서관은 이미 기증된 도서에 대한 분류와 컴퓨터 입력후 서가에 비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재용 사서는 "권영민 교수의 도서기증으로 해방이후 현대까지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폐기됨이 없이 영구히 소장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도서관은 기증된 도서의 첫 페이지에 기증자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찍어 기증받은 도서임을 명시해주고 있다.

권 교수가 기증한 도서는 '이상문학연구 60년' '북한의 문학연구서(1989년)등 자신의 저서를 비롯 저자들이 권 교수에게 기증한 친필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또 기증도서에는 연구서적 뿐만 아니라 이광수의 '무정', '김소월 시전집' '정약용의 목민심서'등 소설과 시집도 포함되어 있어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읽을꺼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도서관에서는 권 교수의 기증도서중 희귀본은 귀중본실 서고에 별도 보관할 계획으로 있다.

UC 버클리 초빙으로 한국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권영민 교수는 "앞으로 버클리대학의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동아시아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게 됐다"면서 "이 자료가 한국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책을 기부한 권영민 교수는 서울대학교 인문대 국문학 교수와 인문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은퇴 후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 중 버클리대학 초빙 으로 현재 한국 문학을 강의 해오고 있다.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은 미국내 대학으로는 하버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2만권의 한국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영묵 동문, '문학의식'에 희곡 인터뷰 실려

소설가 이영묵(공대58, 전 8대 미주총동창회장) 동문이 한국에서 발행되는 문예 계간지 '문학의식' 여름호 '해외작가' 편에 작품과 함께 인터뷰가 실렸다. 수록작은 1930년대 팔봉 김기진 선생이 쓴 장편소설 '해조음'을 희곡으로 각색한 것이다.

이 동문은 인터뷰에서 "해조음은 현실의 모든 기만과 불합리를 폭로하고 대중의 불만을 응결시켜 독자 대중을 붙잡아야 한다는 팔봉의 문학관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바다 조류의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관음보살이 설법하는 우렁찬 소리라는 뜻도 갖고 있는 해조음의 숨은 뜻도 읽을 수 있다"며 "독자가 작품을 해석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소설에 좀 더 재미를 가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연극무대에 올리려 희곡으로 썼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최성록 음향감독, 할리웃서 맹활약

한인들의 할리웃 메이저 영화계 각 분야로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예술인 음향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는 한인이 있다.

주인공은 올해 슬램댄스 영화제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심사위원상과 관객상을 휩쓴 영화 '밀리언 달러 덕'(The Million Dollar Duck)의 사운드 작업을 총괄한 영화 음향 전문가 최성록(공대 92)동문이다.

최 동문은 '설국열차' '클래식' 극장전' '태극기 휘날리며' 등 충무로는 물론 한국과 할리웃에서 수십편의 영화 음향 작업과 TV시리즈 사운드 편집 및 디자인을 담당하며 활약해 왔다.

할리웃 영화사 라이온스 게이트가 10월 극장 개봉을 앞둔 '밀리언 달러 덕'의 사운드 에디팅과 믹싱을 끝낸 그는 "감독과의 친분으로 영화 촬영의 녹음을 담당했고 편집을 기다리던 중 슬램댄스 영화제 진출 소식을 접했다. 부랴부랴 영화제 상영을 위한 임시 믹싱을 했고 1월 초 영화제 상영일 라이언스 게이트와 애니멀 플래닛과의 계약이 결정돼 얼마 전 극장용과 TV용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영화 사운드 작업은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된다. 최 동문은 대사 편집(Dialogue Editor)으로 시작해 주어진 영상에 맞는 사운드를 붙이고 다듬는 음향 편집(Sound Editor), 완성된 여러 분야의 사운드 트랙을 모아 조정하는 믹싱(Mixing), 개별 사운드를 디자인해서 만들어 내거나 영화 전체적인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음향 디자이너(Sound Designer) 등 모든 분야를 섭렵했다.

〈미주한국일보 발췌〉

개교 70주년 홈커밍데이에 다녀와서...

2016.10.15 - 2016.10.17

모교 방문 소감

서울대학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이번 홈커밍데이에 나는 모교를 방문했다. 34년만에 방문한 모교에서 알아볼만한 것은 정문의 아치와 본관건물 뿐이었다.

그만큼 서울대학교는 한국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의 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캠퍼스 눈부신 성장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번에 머문 호암교수회관 앞이 34년전 내가 교환교수로 머문 교수아파트였던 자리였다.

그때는 교수아파트가 2동 30가구였고 외국인은 나 혼자였는데, 교수아파트는 5층으로 256가구가 거주하며 외국인 교수도 56명이나 머문다고 하니 새삼 새롭다. 많은 것이 변한 그곳에 옛 관리인만이 그대로 있어서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모교를 생각하면 늘 데모를 생각하게 한다. 대학시절 1956년 1학년1학기 문리대 캠퍼스가 종로에 있을 때 '필화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북학생들과 대화하자' 라는 글이 나돌아 종로경찰서가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다.

그후 23년 지난 1981- 1982년에 산업공학과 초빙교수로 방문했던 관악캠퍼스에서 '군사정부 타도'에 대한 데모가 아주 심했고, 그후 34년만에 귀국한 이번 해에도 총장실 앞과 본관 앞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번 주제는 '시흥캠퍼스 건립반대'로 데모를 하고 있었다. 총장실과 대학의 업무가 마비가 되는 듯 보였다. 이러한 광경들을 볼 때 우리 후배들이 너무 지나치게 대학 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959년에 졸업을 하고 콜롬비아 대학원으로 공부를 하러 와서 물리학과 건물(Pupin hall)에 들어가 봤을 때가 생각났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20여명 교수진 중에서 4분이나 노벨상을 받은 기록을 보았다. 노벨상 수상자 4명 중 한 분인 '씅따우리' 라는 대만 출신의 젊은 교수를 보며 우리 서울대학생들을 생각했었다.

상하이 대학 유학중인 손자가 나를 아시아의 하버드 대학 졸업자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홈커밍행사에 참석한 나를 만나러 와서 서울대학교의 풍경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한 모습을 보았다.

이번 홈커밍데이의 방문은 나로 하여금 서울대의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내가 10년 후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된다면 그 땐 학생들이 무슨 주제로 데모를 하고 있을려나? 고병은 (문리대 55)

화려했던 서울대 70 생일 축제

10월15일 아침 마포의 서울대 동창회관에 들려 벽에 새겨진 선후배 동문들의 이름들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임광수 전 총동창회장님의 좋은 선물과 영접을 받았다.

얼마 후 긴장되고 부풀은 마음으로 관악엘 도착했다. 처음으로 접하는 캠퍼스라 우거져있는 숲이며, 그 사이 사이로 자리잡고 우뚝 선 빌딩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었고, 유감스럽게도 연건동의 낡은 목조건물이 떠오를 뿐 우리들은 한번도 그 멋있는 곳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옛날 옛적의 나를 상기시켜 주기도 했다.

호암교수회관은 그런대로 아담했고, 이틀간 우리 미주동창들이 머물 숙소들은 적당한 공간에 잘 정리되어 있었다.

16일 개교생일날 몇몇은 걷고, 우리들은 작은 차를 타고(Van) 운동장으로 향했다. 많은 텐트들이 운동장 가장자리로 쳐져 있었고 여러가지의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헝겊으로 만든 큰 윷, 지름이 10cm가 될 것 같은 둥근 통에 10여개의 화살던져 넣기 등 하나도 할 수가 없었고, 왕년에는 100여개의 숫자를 자랑했것만, 76세의 내 다리가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고 기껏 제기차기 3번으로 끝났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큰 비닐백에는 많은 밥과 여러가지 반찬들, 음료수, 오징어 말린 것, 옥수수 칩 등… 아무렵 보리밥 먹기도 힘들던 GDP $160 시절에 비하랴.

참가했다는 조건만으로도 다량의 상품들이 주어졌고 쌀, 가방, 방석, 기타 등이 보였다. 많은 동문들의 아이들도 참가했고 음악은 물론 단 위에서 상품들을 타기위한 즉흥 춤들도 웃기는 것들의 하나였다. 날은 흐렸지만 우리들의 기분을 뺏어갈 수는 없었다. 다음 날은 보통 보기 힘든 규장각을 방문해 오랫동안 귀한 문서들을 잘 보관해 온 것에 감탄을 하면서, 1860년대 김정호가 처음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큰 '대동여지도'를 볼 수 있었는데, 보통 벽에 거는 지도의 3배 크기였다.

특별한 부탁으로 달력에서만 보아 온 새 중앙도서관도 관람할 수 있었는데, 현대식으로 잘 지어졌음은 물론 그 당시 우리가 보낸 보조금이 제대로 잘 쓰여진 것을 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모교 방문은 정말 잘 했다고 남편과 나는 즐거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김명자 (문리대 62)
오태요 (의대 56)

Day 1

모교 70 주년 홈커밍데이의 미주방문단 행사 첫날인 토요일 아침, 22명의 방문단은 2011년 완공된 마포의 SNU 장학빌딩에 모였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임광수 총동창회 명예회장님의 안내로 간단한 아침식사를 겸한 다과를 접대받은 후 건물 신축을 위해 기부해주신 동문들의 부조와 명패가 설치되어 있는 2층에 소재한 베리타스홀을 관람한 후 기념촬영을 하였다.

바로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관광버스에 올라 서울시티투어가 시작되었다.

토요일의 복잡한 교통사정으로 인사동 쌈지길은 차로 구경을 하며, 그냥 지나고 경복궁, 다음으로 1405년 지어진 창덕궁을 관람했다. 비원으로 알려진 창덕궁은 서울에서 두번째로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유일한 궁궐 후원이라한다.

특별히 우리일행이 미국에서 온 서울대 동문들임을 발견한 한문화연구원의 원장님께서 짧은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도 했다. 점심으로 비빔밥과 파전을 먹은 후, 남산타워로 향했다. 수도 서울의 복판에 솟아오른 남산에서 40여년 국민에게 사랑을 받아온 케이블카를 타고 서울시내의 풍경을 보며 수도 서울의 발달된 모습을 각자가 한국을 떠난 그 시절의 서울과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별히 한복체험으로 있는 사진관에서 이전구 동문 부부와 김명자 오태요 동문 부부는 왕과 왕후의 의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누렸다.

마지막으로 남산골 한옥마을 관람이 있었는데,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다섯 채를 이전, 복원하고 이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성격에 걸맞는 가구 등을 배치하여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했다는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각자의 짧은 자유시간을 가졌다.

시내관광을 마친 후, 미주총동창회 손재옥 회장의 저녁 만찬이 서울대 근처 음식점에서 있었고, 다음날의 홈커밍데이를 기대하며 호암교수회관에 숙박하였다 특별히, 이틀간의 호암교수회관 숙박에서의 아침식사는 뉴욕의 이전구 전 미주동창회장께서 결혼 50주년 기념턱으로 모든 동문들께 대접하였다.

글:허유선 (가정대 83) 편집위원

Day 3

홈커밍일정 세째날 10월17일(월)엔 서울대 홍보관과 규장각 방문 그리고 학생식당 점심, 미주동문들의 만찬이 있었다.

1895년-1945년은 근대식 국립 고등교육기관의 토대를 마련했고, 1946년-1953년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대학, 1954-1960년은 전후 민족의 대학재건, 1961년-1974년은 민족의 미래 명운을 개척하는 대학, 1975년-1986년은 관악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대학 종합화, 1987년-1999년은 대학의 민주화 실현, 2000년-2010년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실현, 2011년- 현재는 법인화를 통해 세계선도대학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계단에 년도별로 장식해 놓았다.

행복한 배움의 터전인 서울대는 1. 선한 인재 2. 세계시민 3. 학문후속세대라는 목표 아래 학문적 가치 창조 즉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통해 통념을 바꾸는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융합과 통합으로 더불어 사는 지혜로 사회에 봉사하며, 전문적 16개의 대학과 대학원으로 나누어 전문인재를 배출하며 세계정상의 대학들과 교류협력하며 인력을 공유하고 있다.

단과대학 교류국가는 Europe, Africa, Asia North America, Latin America 의 58개국에 협정 611기관 학생교환은 45개국에 협정 356기관이 된다. 학술자료는 4,920,000의 많은 자료가 있으며, 창의적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진리의 빛으로 빛나고 있는 모교를 방문한 미주동문들은 후배들의 열정어린 눈방울에서 흐뭇함을 만끽하며 옛 대학시절을 회상하는 즐거운 추억의 장을 만들었다.

이어서 규장각을 방문했다. 규장각은 조선시대 기록문화 한국학을 보장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실이다. 전시실은 10곳으로 나뉘어 있고 1.정조의 즉위와 규장각 창설에 대한 것 2. 정조새대의 학술적 성과, 3. 정조를 도운 신하들 4.정조새대의 경제, 군사, 외교 5.백성과의 소통과 대민정책 6.신도시 화성과 을묘년 원행 7. 영구 보존을 위한 기록 편찬 8. 고지도 9. 규장각, 세계의 지식을 품다 10. 해군이 지켜낸 기록유산으로 소장자료 80,632 종 246,313 점 (고도서 종류29,367/자료수 177,329, 고문서 종류51087/자료수51,087, 책(목)판 종류102/자료수17,821, 현판 및 기타 종류76/자료수76)이다. 각 전시실마다 국보로 내려 온 자료와 책들을 보며 선조들의 탁월함과 상세함을 배우며 서울대 안에 규장각이 있음에 자부심을 갖게 했다.

우리 동문 30분의 점심을 성낙인 총장님께서 학생식당에서 학생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후배들이 질서 정연하게 식사하는 모습에서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 우리는 해외에서 한 세월을 꿈속에서 살았을까? 세월은 참 빠르고 추억이 그리웠다.

10월25일 임광수 전 서울대 총동창회장님 임광토건을 미주 동문 이영묵 전 미주동창회장과 김건진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공대식 총동창회 부회장, 백옥자 조직국장이 방문하여 임광수 회장님의 근황을 들으며 항상 젊게 운동으로 관리하는 모습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무의 LK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정정함을 보며 서울대인으로서의 쉬지 않는 미래의 도전에 감탄하며 후배들이 배워야 할 인생의 꿈과 끈기를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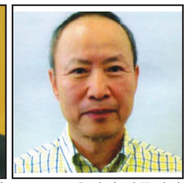
글: 백옥자 (음대 71) 조직국장

김경일 자문이사

김은한 자문이사

정정욱 자문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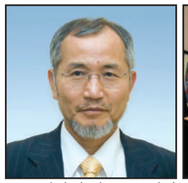
윤상래 자문이사


윤희경 자문이사

지부 소개 뉴잉글랜드 New England

김선혁 감사

김인수 전 창립총회 준비위원장


이강원 전 KSEA회장

변화경 NEC 교수

황보엽 보스턴 오케스트라 바이올린니스트

1.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특색은?

뉴잉글랜드 동창회에는 최고의 지성들이 많다. 뉴잉글랜드의 중심지 보스턴엔 세계 최고의 대학 하바드와 MIT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보스턴을 끼고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엔 수재급 동문들이 많다. 미국 각 지역 동창보다, 한국의 어느 지역 동창회보다 우수한 동문들이 많다. 그래서 전문직종 분야에 종사하는 동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동창회 구성원들의 분포가 이를 말해준다.

공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의약 계열(의대, 약대, 수의대, 간호대) 출신이 많다. 이는 유학을 와서 이곳에 정착한 경우와 1965년도부터 활짝 열린 외국인 전문 직종 이민문호 개방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음대 출신 동문들이 의외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곳이 뉴잉글랜드 컨서버터리(NEC), 버클리 음대 등 명문 음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수긍이 된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에는 현재 약 280여 명의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미등록 회원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수많은 유학생, 비지팅 스칼라 등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동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동창회 창립과 역사는?

동창회의 설립은 이곳 한인의 정착 역사와 함께한다. 뉴잉글랜드 한인 이민 역사는 유학생으로부터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보스턴 지역의 첫 한인 발자취〉

보스턴에 첫 한인 발자취는 유길준이 남겼다. 유길준은 1883년 7월 고종이 파견한 미국방문사절단의 일원으로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을 방문했는데, 당시 보스턴에서 박람회가 개최되어 이를 관람하기 위해 보스턴에 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방문단 일행과 함께 귀국하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 보스턴에 잔류하였다. 유길준은 보스턴 북부 세일럼에 소재한 거버너 더머 아카데미에 다니다가 중퇴하고 1984년 12월 귀국하였다.

〈최초의 유학생〉

유길준이 귀국한 후 20여년 동안 뉴잉글랜드 지역에 한인이 방문한 기록은 없다. 1902년 조선에서 은행 간부를 부친으로 둔 백상규가 로드아일런드의 브라운 대학에 첫 자비 유학생이 되었다. 무역학을 전공한 그는 브라운 대학 첫 한인 학사 학위를 받고 1905년에 귀국하였다. 이후 이승만이 하바드 대학에서 역사 및 정치학 석사과정으로 1907년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이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제 강점기에는 김활란이 1924년에 보스턴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이후 보스턴대 의과대학에 두 서너 명의 한인들이 유학을 왔다. 그러다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 유학생들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서울대 동문의 정착〉

1950년대 초 서울대 출신으로 서두수(경성제대 문학과 25년 입학,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서남표의 부친), 고광림(법대 45년 졸, 작고), 오병헌(문리대 정치학과 48년 졸, 작고), 이영수(문리대 화학과 54 입학, 오병헌 동문 부인) 동문 등이 하바드 대학, 코네티컷 대학 등으로 유학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서두수는 1953년 보스턴 한인회를 창설하기도 했는데 회원 대부분이 유학생들이었다. 이 당시 한인 인구수는 50여 명 정도였다고 한다. 보스턴 지역에 한인 사회가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새 이민법 시행으로 많인 이민자들이 오기 시작하고서부터이다. 현재 한인 인구 수는 대략 3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하 학번은 입학년도임. 졸업은 별도 학번뒤에 표기)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창립〉

서울대 출신들이 조금씩 늘자 마침내 동창회가 결성되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창립총회는 1997년 9월 21일에 뉴턴 소재 매리엇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매사쥬세츠, 로드 아일랜드, 뉴햄프셔, 메인, 버몬트, 코네티컷 등 6개주 거주 동문을 대상으로 결성되었다.

창립총회는 김인수(사대 55) 동문이 총회준비위원장을, 박경민(의대 53, 작고) 동문이 창립발기인대표를 맡았고, 이춘순(사대 55), 이인순(약대 62졸), 김은한(의대 60), 인준식(사대 61), 김문소(수의 61), 윤상래(수의 62), 김동희(간호 62), 이강필(공대 64), 박영철(농대 64), 최영훈(공대 65), 변화경(음대 66), 정선주(간호 68), 김종성(경영 76), 고일석(보건 69) 동문 등이 발기인, 행사 준비 역할 등을 분담해 맡아 기여했다. 이후 동창회는 매년 서너 차례 모임을 갖고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총회, 야유회, 송년모임, 자선음악회 등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동문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3. 동창회 주요 활동은?

친목과 결속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다. 매년 정례적으로 세 차례 갖고 있다. 그리고 등산회, 단풍 구경 모임, 미술관 관람, 바닷가 산책, 역사 고적 탐방 등을 수시로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자선활동으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여 탈북 난민, 북한 어린이 돕기 등을 하여 왔다. 장학사업으로 매년 3-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강원(공대 66) 동문이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선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10월 15일에는 보스턴 인근에 있는 블루 힐스란 산의 등산로 정비를 위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4. 동문들의 활동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하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학 연구 활동〉

세계에서 한국학을 독립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하바드 대학 부설 한국학연구소이다. 여기에도 서울대인이 활약하였는데 첫 시조격은 서두수이다. 서두수는 워싱턴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키면서 에드워드 월렛 와그너를 제자로 두었는데 와그너가 하바드 한국학연구소 초대 소장이 되어 한국학 연구를 반석위에 올려놨다.

하바드 대학 옌칭 도서관 (현재는 옌칭 인스티튜트)은 동양학 연구로 유명하다. 이 도서관내 한국관련 장서를 모아 놓은 한국관이 있는데 초대 관장을 맡아 한국학 연구의 디딤돌을 놓았던 김성하(경성제대 사범 26졸)를 이어 윤충남(문리 60) 동문이 2대 관장을 맡아 한국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에서 이곳 서울대 동문들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71년에 KSEA가 창립되었는데 이듬해인 1972년에 뉴잉글랜드 지부가 창설되었다. 성낙호(공대 60), 김경일(공대 58), 이강원(공대 67), 원덕수(공대 72) 동문이 뉴잉글랜드 지부장을 맡아 공헌하였다. KSEA 전국 조직에서는 KSEA 회장으로 성낙호(2001-2002), 이강원(2007-2008) 동문이 KSEA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의료 의약 분야 활동〉

미국 의학의 메카로 자부되는 이곳에서도 서울대 동문들은 의료 각 분야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곳에 첫 뿌리를 내린 의대 동문은 이호영(의대 44, 병리학과 의사 로드 아일런드 병원) 동문과 박요수아(의대 55졸, 가정의로 로드아일런드 개업) 동문이다. 의대 동문들의 수가 늘어나자 서울의대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1970년에 창립되었다. 초대 회장은 도상희(경성제대 의학부 42졸) 동문이 맡았다. 이 당시 회원은 35명이나 되었다. 서울대 뿐아니라 타 대학 출신 의료인이 증가하자 1982년에 뉴잉글랜드 한인의사회가 창립되었고, 서울대 동문들은 한인의사회 창설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박경민(의대 53,작고), 김은한(의대 60), 정정욱(의대 60, 브라운의대-메모리얼병원) 동문이 회장을 맡아 한인 의사회 발전과 지역 의료 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정태진(의대 53), 이상원(의대 62), 고일석(보건 69), 이영길(의대 71, 현 보스턴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천일(의대 67) 동문 등이 학교, 병원 등에서 의료 활동을 했거나 하고 있다. 김문소(수의 61) 동문은 재미한인수의사회 회장(95년)을 역임하여 수의대 출신들의 미국 정착을 도왔다. 윤상래(수의 62,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 이상운(수의 87), 배지선(수의 94), 강은주(수의 2003) 동문 등이 활동하고 있다. 약학 분야에서는 김선혁(약대 59) 동문이 약학 연구 개발 분야에서 큰 기여를 했고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오세경(약대 61) 동문은 보스턴 의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박영철(농대 64) 동문은 유전학 연구소 등에서 암 치료약 개발에 많은 기여를 했다.

〈간호 분야〉

이곳은 또 간호대 출신이 많다. 서울대 간호대 친교모임이 있다. 김동희(간호 62), 김계숙(간호 63), 정선주(간호 68), 전태선(간호 69), 홍지복(간호 70), 김혜숙(간호 72졸, 전 로드 아일랜드 대학 간호대학장) 동문 등이 병원, 요양소, 대학교 등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미주 및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음악〉

서울대 동창회는 1993년부터 매년 봄에 서울대 음악회를 최근까지 개최해 왔는데 황보엽(음대 65), 변화경(음대 66) 동문이 주축이 되어 이끌었다.

황보엽 동문은 바이올린니스트로 1973년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동양인 최초로 단원이 된 이래 현재까지 40년 이상을 연주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예비학교와 탱글우드 인스티튜트등을 비롯하여 보스턴 각지역에서 제자 양성도 활발하게 하고있다. 변화경 동문은 피아니스트이자 뉴잉글랜드 컨서버터리(NEC)의 교수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인 음악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NEC가 주는 최우수 교수상(레써)을 수상하기도 했다. 변 교수는 후진 양성에도 평생 열정을 바쳐, 수많은 제자들이 세계 유명의 콩쿨에 입상했다. 김유경 동문(음대 72)은 미국교회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한미예술협회의 음악담당자로 기품있는 음악인들의 무대를 마련하고있다. 장수인(음대 76) 동문은 화음 보스턴 첸버오케스트라 대표로 매년 정기적으로 보스턴 한인들에게 수준높은 연주를 선사하고 있다.

〈학계 및 연구〉

이영수(문리 54, 코네티컷대), 김경일(공대 58, 일리노이대), 성낙호(공대 60, 터프츠대), 윤은상(상대 66, UMASS), 변화경(음대 66, NEC), 이강원(공대 66, 로드 아일런드대), 김용구(공대 66, UMASS), 김경석(공대 70, 브라운대), 오세자(문리 71, UMASS), 김병국(공대 71, UMASS), 김혜숙(간호 72, 로드 아일랜드대), 이영인(사대 74, UNCG), 김종성(상대 76, 보스턴대), 천정훈(공대 76, MIT), 장명우(치대 83, 하바드 치대), 한종윤(물리 92, MIT), 송주현(사회 94, 브라운대) 등 많은 동문이 대학에서 활동했거나 하고 있다. 박정부(공대 60), 윤희경(문리 62), 윤용훈(공대 67), 이의인(공대 68, MIT), 임영호(공대 72) 동문이 대학 및 기업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다.

〈사회문화단체 활동〉

사회문화단체를 조직하고 이끌면서 한미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는 동문들도 많다. 김문소(수의 61) 동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보스톤 한미문화재단은 지난 수년간 한국 출신 젊은 음악가들과 그 동료들을 통해 보스턴 지역 관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전하며 미국 음악가들과 문화교류에 노력하고 있다. 김병국(공대 71) 동문은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회장으로 한국 문화예술을 미국에 소개하고 한인 문화 예술 작가들을 지원하면서 한국 문화예술 교육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정정욱(의대 60) 동문이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스턴 시민협회에는 김은한, 정정욱, 김문소, 고일석, 최영훈, 이의인 동문 등이 회장과 이사장, 고문, 임원 등으로 한인들의 정치 참여,법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박경민(의대 53, 작고) 동문이 뉴잉글랜드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2004년), 뉴잉글랜드 한인사 편찬위원, 보스턴 한미 노인대학 학장 등을 맡아 한인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였다.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에는 김은한, 정정욱 동문이 수석 부회장으로, 이강원, 윤용훈 동문이 감사로, 윤상래, 김동희, 윤은상(상대 66), 변화경, 이의인 동문은 분과별 활동에 참여하여 기념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기여하였다. 보스턴 노인대학에는 김형범(문리 55), 김은한, 정정욱, 이의인, 이영길, 김동희, 김문소, 박영철 동문 등이 각기 전문 분야 강사로 봉사했다. 김은한 동문은 한인회에서 건강 강좌를 하고, 무료 진료 상담 등 봉사활동을 하였다. 윤상래 동문은 한글학교를 세워 한인과 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김인수 동문은 뉴잉글랜드 한인회장으로, 김은한 동문과 김문소 동문은 뉴잉글랜드 한인회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이호영, 박요수아, 이강원, 고일석 동문은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윤희경(문리 62) 동문은 보스톤 봉사회를 통해 오랫동안 지역 교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왔다.

〈지역 언론 활동〉

장용복(공대 58), 김은한, 정정욱 동문 등이 지역 신문에 칼럼리스트로 역사 문화, 건강, 시사 이슈 등에 대한 활발한 기고 활동을 하면서 지역 한인에 기여를 하고 있다.

〈기업 활동〉

이강필(공대 64), 박찬진(공대 71), 이정수(공대 71), 김진식(공대 71), 이제봉(공대 72), 고종성(사대 75), 윤광현(공대 78) 동문 등 많은 동문들이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있다.

〈종교계〉

이영길 동문이 보스턴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 활동하고 있다. 박요수아 동문은 목회자로 영생장로교회를 창립하였다.

〈인문 사회 계열 동문〉

상경계를 제외한 인문 사회 계열 동문들은 극 소수이다. 김호웅(법대 65), 정태영(문리 71), 이경애(문리 73) 동문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5. 동창회 운영을 위해 수고한 동문들

동창회가 지금껏 지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단 및 운영진의 숨은 역할이, 그리고 이사진의 이사회비 납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 회장으로 박경민(의대 53, 작고), 강경식(작고), 이재신(공대 57), 정정욱(의대 60), 윤상래(수의 62), 윤희경(문리 62), 김병국(공대 71), 정선주(간호 68), 장수인(음대 76), 이의인(공대 68) 동문이 많은 헌신과 기여를 했다. 김천일(의대 67), 변종원(공대 70), 오세자(문리 71), 이경애(문리 73), 이향숙(간호 73), 고종성(사대 75), 정인석(공대 78), 도삼주(공대 84),이재형(공대 91) 동문 등이 위원장, 부회장, 임원 및 집행부로 헌신과 기여를 했다.

현재는 자문이사로 김경일(공대 58), 김은한(의대 60), 정정욱(의대 60), 윤상래(수의 62), 윤희경(문리 62) 동문이, 감사로 김선혁(약대 59) 동문이 헌신하고 있다. 동창회 운영을 위해 수고한 동문들 중 근래에 도삼주(공대 84), 김제성(공대 87), 이재형(공대 91, 한국으로 이주) 동문 등이 많은 수고를 했다. 현재 정태영(문리 71), 이영인(사대 74), 김제성(공대 87), 서병철(약대 90), 조진행(공대 90), 남궁범진(자연 01), 나유선(음대 02) 동문 등이 임원 및 집행부로 수고하고 있다.

6. 회장 인사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학자인 스승 한 분은 '살아간 흔적이라도 남기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아쉬운 나이에 별세하셨습니다.

이곳 뉴잉글랜드에서 활동하신 훌륭한 동문들의 자취를 웹사이트 또는 책자로 기록에 남기는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염원을 합니다. 동문, 동문 한 분들의 크고 작은 열전(列傳)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글쓴이 정태영 회장)

정태영 회장

임원명단 및 연락처 :

회장: 정태영(문리대 71)
전화: 978-908-0196
chungty1@snu.ac.kr

운영진: 이영인(사대 74)
김제성(공대 87)
서병철(약대 90)
남궁범진(자연 01) 등

김기형(상대 75)

30년만의 歸還

홍선애 동문의 고국전시회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제7전시실에서 홍선애(미대 62) 동문 (Sunny Kim)의 개인전시회가 열렸다.

30년만에 고국에서 가진 전시회에는 추석이 코앞인데도 많은 방문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주의 꿈 Cosmic Dream' 시리즈의 작품들과 30년전 전시회때 낙점되어 국립현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네 점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첫 날 이홍전 동문 (미대 82)의 사회로 시작된 오프닝 행사에는 50여명의 귀빈, 동문 선후배, 미대동창회 임원들, 또한 소위 큰 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오프닝의 해프닝

축사로, 전 유엔사무차장 김학수 박사는 우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고 또한 전세계적으로 그 관심이 매우 증대되고 있음과 문화적 예술적 가치도 매우 커질 것임을 피력했고, 오경환 종합예술학교 초대학장(미대59)은 회화적 예술인들도 재미화가 서니김 작가의 선구자적 행보를 따라 이제 우주를 소재, 주제로 작품을 많이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테너 강형문교수의 'You Raise Me Up', 'O'Solemio' 는 참석자들을 작품속 우주 저편으로 이끌어 가는 듯. 고학찬 예술의 전당 사장은 와인 마시기 전과 후에 하는 작품감상을 비교해보라 하여 많은 웃음을 이끌어냈다. 이어 김기형(경영75)동문의 영시 (sonnet) 'DESTINY'의 낭독으로 야릇한 분위기가 잔뜩 고양된 뒤, 남가주 동창회의 단골인 북가주 La Montanita Vineyard로부터 공수해간 Syrah 2004 Reserve로 시음회가 이어졌다. 관객들은 물밀듯이, 구름위를 떠다니듯 Wine과 함께 작품 속 은하수의 세계로 우주의 꿈을 꾸듯 몰입되어 갔는데…

아직도 청춘은 목마르다

와인잔을 들고 관객들을 휘몰아 반 몽롱상태에서, 작품에 녹아있는 작가의 정신적인 면, 동양사상, 우주론등을 펼쳐가는 김동문…., 이때 문득 주위가 소란해지며 나타난 왕년의 스타, 신성일군. "그냥 그림이 특이하고 자꾸 끌려서 발걸음 가는데로 들어왔어…" 환장하는 아줌마들. 신성일 선생은 행사뒤 다시 전시장을 찾아 일일이 가격을 물어 봤다는데…. 요즘 벌이가 좀 시원하신지 어떠신지… 서니김 작가는 나중에 소식을 전해듣고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 만인의 스타와 환담. 다음 번엔 점심 사시겠다고… 재빨리 Celeb Marketing을 꿈꾸는 김동문.

우주의 그 줄기찬 에너지

써니 김 작가는 자신의 Cosmic Dream 시리즈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는데….

"흘러내리듯 하는 dripping 기법은 자연스러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물의 상, 그 우주의 줄기찬 에너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혹자에는 찐득하달까…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죠? 허나 우주의 법칙은 냉혹하고 (天地不仁) 치열하게 우리를, 세상 만물을 줄기차게 에워싸고 혹독하게 그 물리적 법칙을 강요하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 우주, 불가사의의 존재를 제약된 시공간속에서…. 우주들의 탄생, 그속의 온갖 생명들이 생성, 소멸, 진화하는 모습을 끊임없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그려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우주는 넓고 꿈은 한이 없어라

대작 Cosmic Dream 2014 (400호)는 김동문의 비즈니스 친구 진현식 박사가 초대한 관심있는 큰 손 사업가들 중 누구에 팔릴 가능성을 확인, 분당의 이홍전 작가 화실에 보관중. 두 점은 팔렸고 세 점은 목하 협상중. 꽤 괜찮은 결과였고 여기서 끝날 순 없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우주시대의 초입에 선 우리인류에, 청년에, 소년에 꿈을 심어주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텐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했던가. 이제 "우주는 넓고 꿈은 한이 없어라." 전시기간 방문한 시인, 작가, 사업가, 어린 학생들, 평범한 주부, 방송국 기자, 친지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의 써니 작가는 30년만의 고국 歸還을 파란 색으로 마무리했다.

빛은 동방으로부터

고국의 미술시장은 참담하리만큼 위축되어있었다. 8년전 닥친 financial crisis는 미술시장을 예외로 비켜가지 않은듯. 허나 희망은 있다. 떠오르는 시장 중국, 동남아가 있지 않은가. 추상이 거의 없다시피했던 중국에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단다. 앞으로 상해 Fair, 대만 Fair등에 참가, 동양철학이 스며든 서양화, 추상, 반추상을 소개할만 할 듯. 결국 빛은 동방으로부터 왔고 이제 시간의 축은 또한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詩 書 畵 가 한데 어우러졌던 우리 先人들의 작품들처럼, 세 다른 장르가 잘 조화될 때 그 가치가 窮極되리라.

철학자 Simonides는 말했던가.

Painting is silent poetry; poetry is painting with the gift of speech"

그 美 (Sunny)는 말했다,

"Veri Tas Lux Mea".

뉴욕 : 개교 70주년 기념 골프 대회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김도명(농대70))는 지난 10월 15일 토요일, 뉴저지 주 하이부릿지 힐즈 골프장에서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골프 대회'를 개최하였다. 쾌적한 가을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5명의 동문과 배우자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쳤다.

손경택(농대 57) 동문이 메달리스트를 차지하였고, 남자 1등 김창수(약대 64), 남자 2등 이대영(문리 64), 여자 1등 Mrs. 김도명, 여자 2등 육클라라, 근접상 김광호(문리 62), 장려상은 진봉일(공대 50) 동문이 받았다.

저녁식사와 시상식은 골프장 클럽 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있었다.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케익을 준비하여 이번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고, 각종 한식과 맥주를 즐기며, 김정필(공대 71) 행사위원장의 사회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뒤로하며 2016년 송년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글: 김원영 IT위원장(미대81)

뉴욕

: 탈북난민구출음악회

제34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가 10월2일 뉴욕 후러싱에 위치한 JHS 189 Auditorium 에서 열렸다.

약 400 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음악회에는 성악과 출신 소프라노 이희정(음대03), 연예술(음대11), 테너 김성욱(음대01), 서병선(음대65) 등의 동문을 비롯한 8명의 성악인들이 출연해 아름다운 노래로 기쁨과 동포애가 넘치는 귀중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에 모금된 1만 5천불을 비롯한 성금은 2006년부터 시작해 금년까지 계속돼 오며 모여진 음악회의 성금들과 마찬가지로 탈북난민들을 돕는데 사용되었다. 탈북자 중 한 분은 최근 미국 영주권취득과 함께 좋은 배우자를 만나 두 자녀를 슬하에 두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며 4살된 딸과 음악회에 참석하여 감동적 간증을 전하기도 했다.

: 손병우 동문 딸 손수정양, 'New York Television Festival' 출품한 독립 영화 뽑혀

뉴욕지부 문리대동창회 회장인 손병우(문리대69) 동문의 딸인 손수정양이 친구 Ginny Leise와 같이 만든 영화 'Urban Teach Now' 가 12회 'New York Television Festival'에 뽑혀 10월 29일 New York Helen Mills Theater 에서 상영되었다.

손 양은 Cornell 대학에서 Economy를 전공하고, NYU Acting School 을 full scholarship 으로 다니며 연기와 연출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New Orleans에서 Teach For America 프로그램으로 8학년 Math 를 가르친 경험을 통해 만든 이 영화는 다른해에 비해 경쟁이 심했던 The Independent Pilot Competition 2016 에 뽑힘으로 앞으로의 티비 프로그램에 주목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

글:허유선(가정대83) 편집위원

남가주

: 남가주미술가협회전

: 한국 가곡의 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남가주 미술가협회(회장 김종성) 전시회가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김낙중(법대83) 한국문화원장은 전시회 오프닝에서 "50여년의 역사를 지닌 순수작가 단체인 남가주 미술가협회 회원들이 더욱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가주 한인미술가들의 가장 큰 행사인 남가주 미술가협회의 전시는 올해로 48회를 맞이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미술가 52명이 설치, 페인팅, 세라믹, 조각 등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했다. 이 전시회에 참가한 서울대 동문들은, 김윤진(미대67), 박다애(미대73), 박영구(84), 백혜란(미대70), 신정연(미대61), 주선희(문리대66), 한석란(미대71), 홍선애(미대62) 등이다.

동문들의 작품 설명을 들어 본다. 백혜란 동문은"내려쬐는 태양 아래 "Wilson" 산을 다니며 메마른 나무들과 때로는 산불로 타버린 나뭇가지들, 황토 색의 흙길을 걸으며 보고 느꼈던 것을 표현해 보았다. 살면서 자꾸 보니 푸른 숲과 산도 좋지만 메마른 산과 나무들도 정이 든다."고 말한다.

윤태자 동문은"삼각의 모양으로 구성된 한 화면이 많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매력이 나를 설레이게 했다. 조화로운 화면 속에서 또 다른 여러 느낌을 만나게 되어 기뻤다."고 말한다.

주선희 동문은,"40년 전에 너츠베리 팜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시작한 그림이다. 이 그림의 딸이, 딸을 나은 지금에, 그 당시에 어린애 같던 내가 많은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한 장의 사진이 시가 되고 예술이 된 것이 가슴 뭉클하다."고 말한다.

한석란 동문은, "수십 년간 작업을 해오면서 나의 작품의 주제는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방법과 소재는 여러가지로 변하면서 그렇게 좀 더 길게 머무는 것과 아닌 것을 대비하며 상징적인 이중성을 이야기했다. 그냥 머물고 싶었던 짧은 순간을 이야기하다 또 오래 묵은 표면 위에 잠시 짧게 머물다 가는 빛과 그 상황이 만들어 내는 고요한 순간을 그려 보다 또는 그 짧은 빛의 숨어 있는 이중적인 경이로움을 그려 보았다."고 말한다.

또한 개막식이 22일 날 열렸고, 23일에는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한국의 얼 : 한국 가곡의 밤"이 열렸는데, LAKMA(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 음악감독 윤임상)와 문화원이 함께 하는 공연이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LAKMA 를 대표하는 솔리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대표적 가곡인'그리운 금강산' '보리밭' '내 마음의 강물'들을 연주했는데, 미주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오위영, 소프라노 클라라 김, 김희우, 양우진, 김미진, 알토 조지영 등 한인 성악가들 뿐 아니라 유명 베이스 더글라스 맥도널드도 함께 연주하였다.

남가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음악인들과 이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음악 애호가들이 모여 결성한 다민족 비영리단체인 LAKMA는, 2012년 1월 결성 이후 지금까지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한 나눔과 후원 활동을 통해 한인사회는 물론 타 커뮤니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글: 홍선례(음대70)편집위원〉

백혜란

윤태자

신정연

한석란

코네티컷 : 새 지부 신청하기로

지난 10월 9일 동문과 가족 14명의이 모인 가운데 미주 총동창회 커네티컷지부로 등록히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리고 지부의 임원으로 지부장에 유시영 (공대68)동문, 총무에 박용해 (상대83)동문을 선임했습니다.

먼저 감사할 일은 저희가 모이기 전부터 미주 총동창회 손재옥 회장님과 동창회보 편집장 김정현 동문으로부터 모임에 대한 전화 문의가 오고 상황을 물어 오시며 회장님이 손수 card와 모임 날에 맞추어 지난 6 개월의 신문을 보내주시며 우리의 모임을 축하하고 권면해주셨습니다. 우선 동창님들의 상황을 모아 35명의 명단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주 총동창회의 요청으로 저희 명단을 총회에 보냈음으로 개인별로 총회에 등록을 하고 저희 분회는 총회의 행사와 프로그램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어쩌면 잊혀진 가운데 홀로 살아갔을 저희들을 모아 주시고, 그저 통성명하고 돌아서 잊어진 분들을 다시 만나니 연대감을 가지고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조국을 떠났지만 대륙의 땅에서 부유한 가운데 살아감에 감사함을 나눌 수 있고 후배나 모교를 위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신청절차를 통해 지부로서 내년 6월의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의에서 인준을 받게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절친한 배려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총동창회 본부가 저희에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문 하나, 하나를 더해 갈 때 보화를 찾는 기쁨도 함께 누리며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여러 동문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할 일은 우선 김일평 선배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문안을 가기로 하고 연말 전에 서울 식당에서 송년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김일평 동문댁 방문〉
우리의 대 선배이며 정치학 교수로 오래 활약해 오신 선배님의 건강이 힘들어지셔서 저희들이 병문안을 가기로 하여 사모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2 시
61 Hillyndale Rd Storrs, CT 06268
같이 방문하실 분은 연락을 주시면 car pool 을 준비 하겠습니다

시애틀 : SNU 포럼 세미나 "시애틀 한인 절반 90살 산다"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한 life style은 무엇인지, 재정 및 사회적인 어려움, 오래 사는 것 보다도 더 어려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서울대동창회(SNU) 시니어 포럼에서 시애틀지역 한인들의 기대수명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그중 절반 정도는 90살까지 살수도 있다는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다.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이제선씨와 내과 전문의인 부인 이명자씨는 지난 10일 55명의 청중들이 참석한 뉴캐슬도서관에서 열린 SNU포럼에서 '건강한 100세 시대 준비법'을 주제로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날 포럼의 내용은 이씨 부부가 변호사와 의사인 전문가인데다 구체적인 통계수치 등을 근거로 설명해 신빙성을 더해줬다.

현재까지 분석이 가능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자 79세, 여자는 85.5세이고, 미국인은 남자 76.4세, 여자 81.2세이다. 육류를 많이 먹는 미국인에 비해 채소류를 많이 먹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2~4세를 더 오래 사는 셈이다.

시애틀 지역 한인들은 상황이 좀 더 다르다. 한국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음주나 흡연율이 낮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등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시애틀 한인들은 한국 내 한국인에 비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 같은 근거로 장수와 관련돼 있는 건강검진이나 관리, 운동, 비흡연, 적은 알코올 섭취 등 대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절반이상이 90살을 넘게 살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고 이씨 부부는 강조했다. 물론 앞으로 각종 질환이나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신약 개발 등 의료기술의 발전도 장수에 큰 몫을 하게 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수퍼 시니어(Super Senior)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체중관리를 잘하고 유산소 운동은 물론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며, 높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수퍼 시니어는 80살이 넘어도 성인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을 말한다. 결국 자기 몸과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자기 일을 행복하게 하면서 목표 의식이 강할 때 건강하게 장수를 한다는 이야기다.

이명자씨는 "40살이 넘어서면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폐경기를 전후해서, 남성들은 40~65살 때 적극적으로 근육을 늘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선씨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실력으로 사업도 시작했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는 돈 걱정도 크게 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한 음식으로 잘 먹고, 운동하며, 부부나 친구 등과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100세까지 살수 있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제공: 김재훈(공대 72)

부 고

고 한은재 (음대60, 소프라노) 교수가 오랜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지난10월14일(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한은재 교수는1964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한 후 동 11월에 김원경(음대61, 바리톤) 교수와 결혼, 1974 로마 싼타 쎄실리아 컨서바토리 수석졸업 후 귀국해 1975년부터 2004년까지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정교수, 과장, 음악대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10월 미국 필라델피아 도미. 낙원장로교회와 리하이 벨리한인교회 지휘자로 봉사한 남편 김원경장로와 함께 성가대에 함께 봉사하였으며 은퇴후 동생과 자녀가 출석하고 있는 첼튼햄장로교회에 출석하고있었다. 일찍 다가온 알츠하이머의 치료차 미국으로 도미한 후 오랜 세월 인내와 사랑으로 아내 한 교수를 돌보아 온 김원경 교수의 감동적인 사연은 많은 사람들을 숙연케 해 왔다.

유가족: 남편 김원경 장로 장남: 김희원/이경숙, 장녀:김수지/이현민, 손녀 김사랑
연락처: 김원경 (215-609-6425)

필라델피아 : 서재필 장학금 시상식

서재필기념재단(회장 최현태 (문리대62))이 지난 8일(토) 재단 강당에서 '2016년 서재필재단장학생' 8개부문 11명에게 총 1만 6500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마지막 선발과정에서 아쉽게 탈락된 6명의 장려 장학생에게는 각 200달러의 장학금도 따로 지급했다. 1999년 헬렌리 장학금으로 출발해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서재필 장학금은 올해 선발된 장학생을 포함해 지금까지 183명의 대학생이 그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미전역에서 22명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이 이번 장학생 선발에 지원한 가운데 주로 각자의 꿈과 포부, 현재 처한 상황과 어려운 난관 등을 솔직하게 표현한 에세이와 개인소개서를 위주로 선발했다.

1000불에서 2000불까지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각자 가슴을 울리는 수상소감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장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방남 (상대73, 필라델피아 전회장) 드렉셀대학 교수는 '낯선 땅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과정을 단기간에 마치고 의사가 되었던 서재필 박사처럼 여러분들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후에 여러분이 가지게 될 많은 재능을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들을 치하했다.

: 가을밤의 낭만음악회

필라음악인협회(회장 이경숙)가 마련한 정기연주회 '가을밤의 낭만 음악회'가 지난 15일 첼튼햄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이번 정기연주회에는 예년의 연주회와 달리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악가들을 초빙해 출연진이 33명에 달하는 대형 이벤트로 치러졌다. 이날 연주회는 러시안 한인 3세로 템플대 음대 조교로 있는 예브게니 됴(Yevgeniy Dyo)가 유명한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Zigeunerwisen)'으로 무대를 열었다. 소프라노 유미영(음대 87)과 매조소프라노 김미순(음대 86) 듀오의 '꽃의 이중창'과 소프라노 심회진(음대 90)과 최정숙의 환상적 듀엣 'Nella Fantasia'가 있었다.

이외에도 소프라노 최혜은(음대), 바리톤 한진희, 테너 양영배 등의 출연진으로부터 오페라 아리아들이 불려졌다. 1부 마지막 순서는 뉴욕주립대 음대 탁영아 교수(1.5세대, 피아니스트)가 클로드 드뷔시 (Debussy) 영상 1 집 중 물의 반영(Reflections in the Water)과 베르디의 리골레토를 페러프레이즈한 리스트(Liszt)의 피아노 곡을 연주했다.

2부 순서에서는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네 명의 한인 클라리넷 연주자들로 구성된 'Quartet Piri'와 'Alacorde Piano Trio'의 연주가 무대를 채웠고 음악인협회 회원들의 여성중창과 남성중창, 합창 등의 순으로 연주회가 박혜란(음대 85) 지휘로 진행됐다. 마지막 무대는 출연진 전체가 무대에 올라 '주님나라 이루게 하소서'를 합창하며 연주회를 마무리지었다.

바로 전날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한은재(음대 61, 김원경 교수 부인) 교수를 추모하며 부른 '승천'이 관객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연주회는 33명의 음악인이 출연 하는 연주회인 만큼 일찌감치 자리가 메워졌고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객석에서는 환호로 연주에 찬사를 보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필라음악인협회를 32년전에 조직하고 이끌어 온 조영호(음대 54) 교수, 김원경(음대 61) 교수, 양경자 교수, 윤정나(음대 57) 동문등의 협회 원로들(사진 앞줄)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550 Township Line Roa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www.snuaa.org, general@snuaa.org
484-344-5500 / 484-342-0222(F)

제 15대 (2019.7 - 2021.6) 회장후보 추천공고

서울대 미주동창회에서는 미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동문 회원 중 미주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 15대 동창회장 (임기 2019.7 - 2021.6)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훌륭한 후보를 금년12월 31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회장, 현회장, 차기회장지역은 제외합니다.

인선위원장 오인환 (제 12대 회장)

제 15대 회장 (2019.7-2021.6)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1. 선거일정
   a. 2016년 12월 31일: 회장 후보 추천서 접수마감
   b.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복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회보등을 통하여 출마공약을 발표한다.
   c. 2017년 6월: 전국평의원회의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회장 확정
2. 근거규정: Nomination Committee (Standing) Rules & Regulations
3. 차차기회장 후보는 재미서울대 지역동창회 회장을 역임했거나 혹은 총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혹은 일반회원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4조참조)

연락처:
오인환 직전회장(DC) (301-775-3919) ioh0858@comcast.net
윤상래 차기회장(NE) (978-835-0100) yoonsville@aol.com
김병연(남가주회장) (213-923-0607) byeongk@gmail.com
정승규(시카고회장) (773-562-0677) s_jung@att.net
손재옥 현직회장(필라델피아) (267-736-2992) JHaahs@timhaahs.com
민준기(뉴욕회장) (845-270-0451) joonmin1@yahoo.com
이상강(하트랜드회장)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워싱턴 DC

: 골프대회

워싱턴지부 서울대동창회 협찬으로, 2016년도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 (WAKS-Washington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기금 모금 골프대회가 지난 10월 1일 (토) Virginia 소재 South Riding Golf Club에서 열렸다.

이번 골프대회는 서울대 동문들간의 친목과 단합 뿐 아니라 차세대 한글교육에 힘쓰며 지역사회를 오래 섬겨온 재미 한국학교 후원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WAKS 는 '우리의 얼, 말, 글을 보다 널리, 멀리!' 를 모토로 하여 지난 30여년간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에 85개의 회원 한국학교들을 포함하여 한인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 애써온 비영리단체이다.

이번 대회는우천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동문들을 포함하여66명의 골퍼들과 10여명의 교사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매릴랜드 Salisbury에서 3시간을 운전하여 행사에 참여한 이기웅(농대78) 동문과 민병록(농대89)이 참석하는 등 동문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어서 감사하였다. (첨부한 사진참조). 참가자들은 후원사업체들이 제공한 홀인원 상 (고급승용차 벤츠와 한국왕복 항공권)을 차지하고자 모두 선전하였으나 행운을 잡지 못해 아쉬워했다.

대회의 메달리스트는 76타를 친 한양우씨였고, 사대 ('69학번) 남춘일 동문은 일반 B조 1등을 차지하였다. 이번 골프대회 대회장은 김해식(공대59) 동문이 맡아 수고하였으며, 여러 동문들이 홀스폰서등으로 후원하고, 워싱턴 지부 안선미 동창회장과 정세근 부회장이 적극 협조해주어서, WAKS 이인애 이사장은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이영수(공대 59) 동문의 부인인 이인애 이사장은, 대회후 강촌식당에서 가진 시상식에서 차세대 한글교육과 정체성확립에 대한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하였다.

WAK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싸이트 www.waksusa.org 을 참조하기 바란다.

: 고 오기창 박사 기념강연회

고 오기창 박사(Dr. John Oh, 법50) Memorial Lecture가 10월 13일 오후 4시에 DC 소재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urley Hall 에서 열렸다.

연사는 동대학 정치학과 Andrew I. Yeo 부교수였으며 강연 제목은 Korea and the Future of Democracy 였다. 강연 후 열띤 질문과 대답이 있었으며 후에 다과를 하며 개인 질문도 이어졌다.

고 오기창 박사 Memorial Lecture는 사모님 오봉완 박사 (Georgetown 대학 명예교수, 법53)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생전에 부총장으로 재직한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와 교수로 재직한Marquette University (교수, Wisconsin) 에서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워싱톤 동창회에서는 이내원 워싱톤동창회 전회장과 오인환 미주총동창회 전회장이 참석하였다.

(사진) 왼쪽에서 부터 이내원 전회장, 오인환 전회장, 오봉완 교수 (Mrs. 오기창), eBay 에 근무하는 둘째딸, 그리고 Catholic University 관계자 두분과 뒷줄에 연사 Andrew Yeo 교수

게시판

송년모임 안내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알립니다.

미네소타 송년모임 : 11월 5일, 오후 5시
University of Minnesota,
Coffman Union, President Room

시카고 송년회 : 11월 27일
오후 5시(Reception) / 6시(Dinner)
Drury Lane Oakbrook Terrace
100 Drury Lane, Oakbrook Terrace, IL 60081

샌디에고 송년회 : 12월 3일, 오후 5시 30분
Town and Country Hotel, Sunset Room

필라델피아 송년회 : 12월 3일, 오후 6시
아리수 연회장 Blue Bell, PA

록키마운틴스 : 12월 4일, 오후 5시
Perkins Restaurant
(1995 S. Colorado Blvd. Denver CO 80222)

조지아 송년회 : 12월 4일, 오후 5시
KTN 연회실 (가수왕 선발)

뉴잉글랜드 송년회 : 12월 10일, 오후 1시
Auditorium, Avalon at Lexington Hills
(작년과 동일)

북가주 : 12월 10일, 오후 6시
Crown Plaza Hotel, Foster city

워싱턴주 송년회 : 12월 10일, 오후 7시
Maggiano's Little Italy
(10455 NE 8th St, Bellevue, WA 98004)

뉴욕 지부 송년회 : 12월 11일, 오후 4시 30분
대동연회장

워싱턴 DC 송년회 : 12월 11일, 오후 6시
The Westin Tysons Corner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플로리다 송년모임 : 12월 19일, 오후 5시
김중권 박사(의대 63)댁
(8600 Banyan Way, Tamarac, FL 33321)

필라델피아 김금자 동문 PAC 그룹전
Reception: Nov 30 오후 5시-7시
Art Center Gallery
Montgomery County Community College
(Central Campus) in Blue Bell, PA
문의: 215-370-6681

조지아

: 가을 야유회

조지아동창회(회장 강창석)는 10월 2일 오후 조지아주 북부에 위치한 포트 야고 주립공원에서 가을야유회를 가졌다.

60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은 바비큐 식사를 나눈 뒤 산책, 게임, 체조 등의 순서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친목을 다졌다.

이날 야유회에는 새로운 회원들이 인사하고, 한국서 암투병중에 돌아온 이운파 동문이 모습을 보여 회원들의 각별한 환영을 받았다.

강창석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한다. 마음껏 자연과 함께 친목을 나누시기 바란다"면서 "동문회가 지역사회에 더욱 참여하고 뜻깊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문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대 동창회 송년회는 오는 12월4일 도라빌 소재 레드앤그린 연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 지역봉사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지난 10월 15일(토) 보스턴 남쪽에 위치한 블루힐스 등산로 보수 정비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등산로 보수 정비 활동(블루힐스 트레일 메인티넌스)은 비영리단체인 '블루힐스 친구들(Friends of the Blue Hills)' 이 주최한 것으로 이 단체 회원들과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동문들이 참여했다. 이날 서울대 동문들이 한 일은 다른 자원봉사들과 함께 등산로 옆에 우회 물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등산로는 비가 올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등산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빠른 유속으로 변해 등산로의 토양을 밑쪽으로 쓸어내려, 등산로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등산로가 망가진다. 따라서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참가자들은 먼저 삽, 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훼손된 등산로를 일부 걷어낸 후 밑바닥에 바윗 돌을 넣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어 등산로를 단단히 다졌다. 그리고 쇠갈퀴, 삽, 나무가지 자르기용 가위 등으로 산 자락에 덮힌 낙엽을 한쪽으로 쓸고 작은 고랑을 파 등산로 옆으로 물길을 만들어 빗물이 등산로를 우회하도록 하였다.

블루힐스는 보스턴에 근접해 있어 가족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하이킹을 즐겨하는 곳이다. 한 프로젝트 리더는 작업 방법을 설명해주면서 "오늘 우리가 정비 보수하고자 하는 등산로는 100년 이상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만들고 닦아온 길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정비 보수하고 있는 이 길은 100년 후의 사람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이영인 동문은 "마치 죤 F 케네디 대통령 연설을 듣는 기분처럼 허름한 차림의 그들이 존경스러워 보였다" 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3시간 여에 걸친 보수작업이 끝나고 일행은 단체에서 제공한 피자를 들며 즐거운 교제 및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글: 정태영(문리대 71) 회장

: 시니어 모임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지난 10월 15일 시니어 모임을 개최했다.

보스턴 인근 뉴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개최된 이날 모임은 첫 모임으로 40~50학번대 동문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친목과 상부상조, 병약 동문 위로 및 지원, 호스피스 자원 봉사, 후진들의 자문에 응하는 등의 활동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모임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모임 참석 대상을 특정 학번대에 국한하지 않고 은퇴한 동문들로 확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 뒷줄 왼쪽으로부터 이(오)영수('54문리), 김인수('55사대), 김제호('56상대) 앞줄 왼쪽으로부터 이(김)춘순('55사대), 김대식('52공대), 김정환('52공대)

샌디에고

: 야유회

10월 15일 청명한 가을 날 San Dieguito Park에서 서울대 동문 야유회가 열렸습니다.

푸른 잔디와 나무 그늘이 어우러진 아름다운공원에 모인 동문 가족들은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며 들뜬 마음으로 점심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불고기와 갈비, 떡볶이등 맛있는 식사로 잠시 후 있을 여러가지 게임과 운동을 위한 에너지를 보충하였습니다. 게임은 네 팀으로 나누어 팀 대항으로 진행되었는데 50년대 학번인 대선배님들부터 00년대 학번인 저희 부부와 10대 학생들까지 함께 섞여서 놀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첫 게임인 배드민턴에 출전해서 선배님들께 살살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최선을 다했지만 점수를 내리 내주고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게임인 배구는 고학번 선배님들의 놀라운 운동신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와일드 카드로까지 뛰었던 어린 학생의 활약도 엄청났습니다.

다음은 축구공 드리블과 게다리 릴레이였습니다. 각 팀의 대표선수들을 위해 응원을 펼치며 박진감 넘치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줄다리기를 준비할 무렵 거대한 도마뱀과 거미를 들고 나타난 레인저들 덕분에 예기치 않은 자연 체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순위별로 선물을 골라갔지만 풍성히 선물을 준비해주신 덕에 모두가 즐거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시간을 기념하기 위한 단체사진을 찍고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다시 담소를 나누며 진행 물품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동문들과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운영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올 12월 3일 송년회에는 더 많은 동문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야유회에는 다음 52분의 동문/동문 가족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해주신 분들 및 행사준비를 도와주신 임원진와 여러 동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기글 작성: 김진우(자연대 03)
후기 편집: 최흥수 (자연대 87)
사진촬영: 심상철 (공대 81), 김진우 (자연대 03)

박종진 (문리대 55)/원효정, 이창섭 (공대 57)/이미자, 박우선 (공대 57)/박해주, 김현철 (의대 57)/김완해, 윤진수 (의대 57)/윤정숙, 염두호 (공대 57)/염숙자, 신영규 (의대 57)/신성현, 김인근 (공대 59)/김경자 (음대 62), 손명세 (공대 60)/손미리 (음대 64), 민영기 (치대 61)/Connie 민, 조두연 (수의대 62)/조현정, 진성호 (공대 64)) /Judy 진 (문리대 65), 손창욱 (공대 65)/손정해, 박상호 (치대 80), 서정용 (공대 81)/김지언, 심상철 (공대 81), 김주성 (농대 83), 강영모 (공대 84), 최흥수 (자연대 87)/최혜나, 이정석 (공대 87), 이제봉 (인문 88)/박은정/David이 박상률 (자연대 91) /백소원/박서준/박혜준, 이진의 (사대 92), 박성주 (인문대 95), 한진주(자연대 99), 최진용 (자연대 00) /이주희 /최원율, 김진우 (자연대 03)/양나래 (음대 06)/김시언

건망증 에피소드
Brain Freeze

얼마전에 Mexico Cruise를 고등학교 동기동창들과 타면서 일어난 좀 창피한 건망증 에피소드입니다.

Long Beach항에서 Cruise를 탈 때도 Security Check이 비행기 탈 때와 같이 짐(Bag)따로 둥근 Plastic그릇에 I-phone과 자동차 Key를 따로 담아 통과시키고 제 자신도 X-Ray문을 통과하려는데 소리가 나니까 혁대(Belt)를 빼서 통과시키고 다시 바지가 흘러내릴까보아 허둥대며 짐을 찾아 배에 타서 일행들과 24hr Open하는 식당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Airplane mode로 I-phone을 setting 하라는 한 친구의 말을 듣고 I-phone case를 열어보니 빈 case만 있고 phone이 없는 거야요.

아뿔사, 내가 짐만 챙기고 그릇에 담아 놓았던 I-phone과 Key를 Pick up 하지 않았던 생각이 퍼뜩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뛰다시피 배를 빠져나가 밖에 설치해 논 Security Checking Booth로 가려하니 여권 Copy를 해서 Guard가 보관해야 돌아올 수 있다며 시간을 끌고 애를 태우더군요. 저는 I-phone보다 차 Key가 없으면 저는 물론 같이 타고 온 세 사람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걱정이 태산같고 이번 Cruise 여행은 망쳤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겨우 다시 Security Check하는 곳에 가보고 Security Office내에 있는 Lost Found에도 가보았지만 없었는데 조금전에 Belt를 풀르라고했던 Security Office가 짐을 check해 보라고만 하고 귀찮은 표정을 짓는데 화가 나더군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여행 자포자기하며 일행이 모여있는 곳으로 와서 자초지종 이야기하려는데 제 Bag 옆에 놓인 가방주머니에 제 자동차 열쇠가 밖으로 보이고 I-Phone은 안쪽에 있지를 않겠어요. 아마 Security Office가 안 찾아가니까 그 옆에 있는 가방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한효동 (공대 58)

Whoever'd send whatever numbers of whichever good pieces for the project, ...
HOPE you/they ALL, please, do savor THIS website, "Where's My Memory?"
(http://youtu.be/XcgRUfuFgao)
It does say that all.

H. Binn Lee 이홍빈 (의대 57)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심해진다. 건망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건망증이 생긴다고 하니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건망증은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연현상인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치매나 파킨스병이 올 수도 있으니 우리는 부단히 조심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일어나는 건망증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차고에 있는 냉장고에 필요한 것을 가지러 간다. 차고에 간 다음 왜 내가 차고에 왔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 빈손으로 부엌으로 되돌아오곤 한다. 요리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가지고 오는 일이 하루에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몇 년 전에는 은행에 갔다가 debit 카드를 쓰고 지갑을 계산대 앞에다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금도 들어 있었지만 신용카드도 들어 있는데 누가 훔쳐가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며 은행에다 전화했다. 다행하게도 내 뒤에 있던 고객이 내 지갑을 발견하고 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어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한 번은 고국을 방문하여 모국관광을 겸하게 되었다. 남해안과 서해안을 돌고 마지막 제주도에 도착하여 관광을 마치고 제주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기를 타려고 했다. 그런데 passport를 서울에다 두고 와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단체 관광이라 가이드가 안절부절 못하는데 수첩에다 passport 번호를 기록해 둔 것이 기억이 나 수첩을 꺼내 번호를 주면서 통사정을 했다. 담당관은 번호를 조회해 보고 오케이 하면서 탑승을 허락했다. 만약 내가 passport 번호를 수첩에다 적어 두지 않았다면 얼마나 난감한 일을 당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또 한 번은 LA Fitness Center에 가서 탈의실에서 벗은 옷을 locker에 집어넣고 자물쇠로 잠가야 하는데 그냥 걸쳐 놓기만 하고 수영장으로 들어갔다. 건망증이 발동되어 그만 깜박 잊어버리고 자물쇠를 잠그지 않았다. 자동차 열쇠를 locker에 넣어 두었는데 도둑이 내 locker를 열고 자동자 열쇠를 훔쳐 주차장에 주차해 둔 내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고 말았다. 주차장에 내 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앞이 캄캄했다.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와 담당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다.

얼마 후 도착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보고서 복사본을 받고 자동차 보험회사에다 보고를 했다. 미국에 수십 년을 살면서 자동차 도적 맞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경찰은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다. 2 주 후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를 라스베이거스에서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 삼 일만에 자동차 딜러로 견인해 왔는데 그야말로 자동차 안팎이 엉망진창이었다. 폐차처분하겠다는 보험회사를 설득해 수리비용만 받고 차를 찾아와 지금껏 잘 운전하고 다닌다.

라스베이거스 법정에서 출두하라는 고지서가 왔었다. 왕복 비행기 표와 호텔비와 교통비까지 모두 부담하면서 원고를 법정에 서게 하는 법질서에 매우 놀랐다. 출두하라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가야 할 판인데 일체 비용을 다 부담해 주어 미국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건망증 때문에 차를 도적맞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미국을 다시 배우고 감사한 일이 많았다. 차고에 들어갈 때마다 텅 비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는지 모르는데 차를 깨끗이 수리해서 차고에 두니 다시 부자가 된 기분이다. 나와 동고동락하며 정이 푹 든 차 …. 다시 찾았을 때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자녀들은 새 차를 사라고 하지만 폐차될 때까지 계속 운전하고 다닐 것이다. 그 후 Locker의 자물쇠를 늘 잠갔는지 꼭 확인한다. 건망증이 가르쳐 준 경각심이다.

김수영 (사대 57)

레테의 강 Lethe river

동창회보의 다음 달 특집으로 '건망증'에 얽힌 글들을 싣겠다는 이메일을 받은 날, 우연인지 필연인지 남편의 동료 이야기를 들었다. 방문하러 온 아들이 간밤에 목욕하려 욕조에 물을 틀어 놓고는 잊어버리고 잠이 들어,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2층 방의 욕조 물이 흘러넘쳐 1층의 나무 바닥을 다 망가뜨리고 지하에는 홍수가 났다는 것이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이쯤 되면 공포를 일으킬 만도 하겠다 싶었다. 한국에 계신 친정 부모님도 가스 불도 끄고 또다시 확인하고 문도 잠근 후 되돌아가 다시 확인하곤 해, 혹 치매가 아닐까 겁이 나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아보니 그저 '건망증'일 뿐이라고 안심을 시켜주더라 하셨었다.

'건망증' 하면 나는 천부적으로 타고났다. 어렸을 적 학교 다닐 때 숙제나 준비물을 놓고 학교에 가는 건 보통이고, 도시락도 놓고 가서 친구들 밥을 얻어먹곤 했었다. 게다가, 나는 이 건망증 때문에 단순 암기를 해야하는 과목은 질색이었으며,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 이름을 외우지 못해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학에 입학해 과 환영회에 가서, 영화배우 더스틴 호프만을 닮은 한 선배와 인사를 나눈 후 그 선배의 이름을 외우려고 속으로, '더스틴 호프만을 닮은 선배 이름은 OOO다'하고 세 번이나 되뇌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선배를 마주쳤는데,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한국 이름은 대개 석자인데도 애를 먹었으니, 미국에 온 후 발음도 제대로 못 따라 할 긴 이름을 대할 땐 어떻겠는가!

한때는 이를 개선해보려고 건망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법이 있는지도 찾아보았다. 〈동의보감〉에서는 고민과 근심이 많은 성격이 심장과 비장의 기능장애로 이어져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정신력 약화와 건망증으로 이어진다고 했고, 심지어 '총명탕'이라 불리는 약재도 있다고 했다. 약이라면 끔찍이도 피하는 터라 '총명탕' 대신, 뇌에 좋다는 과일이나 견과류, 생선을 많이 먹는다. 여전히 이름은 잘 못 외우고,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를 간구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처럼, 나는 건망증을 개선하려 애쓰는 대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건망증도 꼭 몹쓸 것만은 아니다.

첫째, 건망증은 나를 관대하게 만든다. 어느 해인가는 남편과 나 모두 결혼기념일을 잊고 지나갔는데, 건망증이 심한 나는 그런 일엔 개의치 않고, 혹 어떤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건망증이 심한가 보다'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인다. 둘째, 건망증은 오뚝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한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 찧은 엉덩방아의 아픔을 생생히 기억한다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며, 내가 첫 아이를 낳은 아픔을 생생히 기억했다면 어떻게 또 둘째를 낳았겠는가.

그리스 신화엔 사람이 이승을 떠날 때 레테의 강물을 마셔 이생에서의 기억을 지우게 된다고 믿었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선 죽은 자는 레테의 강물로 그 기억을 지워야만 다시 환생할 수 있다고 했다. 꼭 이승을 떠날 때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론 잊는 것이 필요하다. 실패나 모진 상처를 잊고 털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꿈꾸겠는가. 혹 기억력이 너무 좋아 괴로운 이가 있다면, 자신만의 레테의 강을 찾아 보길 권한다. 동네 개울가 약수터 물을 레테의 강물이라 정해도 좋고, 소주 한잔 혹은 와인 한잔을 레테의 강물 삼아 마시고 잊고 싶은 기억은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송윤정 (인문대 89)

한 백인 할아버지가 친구에게 며칠 전 새로생긴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고 자랑을 한다. 친구가 나도 가봐야겠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할아버지: 그 좋은 냄새나는 꽃, 이름이 뭐지?
친구: 릴리?
할아버지: 그 빨간색 꽃, 연애할 때 주는꽃.
친구: 로즈?
할아버지: 맞아, 로즈. (부엌을 향해) 로즈, 얼마전 밥먹은 식당 이름 뭐지...?
애들을 키울 때 엄마들의 가장 많은 실수는 애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이었다.

주부 건망증의 대표는 항상 한가지 빼놓고 오는 시장보기부터 시작해서, 잘 차려놓은 저녁식사때에 꼭 놀러놓기를 빼먹은 밥통, 전자렌지 열어보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깜빡 잊은 템힌 음식, 전화해 놓고 잊어버린 용건들..

그러나, 고칠 수 있는 수 많은 작은 실수들은 지나고 나면 재미있기도 하다.

이제 반백년 인생 살며 주부건망증, 임신치매, 갱년기치매 등 여러가지 겪고나니 인생이 아름다울려면 Nicolas Sparks의 영화 'The Notebook' 처럼 사랑만이 답인것 같다.

베푼 사랑은 잊어버리고, 받은 사랑는 기억하며 아름답게 살고 싶다.

허유선 (가정대 83)

음력으로 남편의 생일은 우연하게도 친정 어머니의 생신과 같은 날이다. 어머니도 남편도 다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변하는 날자를 정초가 되면 미리 달력에다 표시를 해두었다.

어느 해인가 바쁘게 지나다가 문득 달력을 보니, '아차,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네' 당황하여 시간을 보니 한국은 이미 저녁이었다. 아침 상을 받으시며 미국에 있는 딸을 생각하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곧 전화를 드렸다.

반갑게 받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의 소홀함을 부끄럽게 하였다. 그날 나는 하루 해가 다 가기 전에 책임완수 했다는 안도감으로 겨우 한숨 놓을 수 있었다.

이튿날, 아무말 없었던 남편을 보는 순간, 맙소사, 한국 시간 맞추어 신경쓰느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일석이조! 두번 신경 안써도 좋다고 큰 소리 쳤던 때가 언제인가..

지재원 (사대 68)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에 등록하고 교실에서 나처럼 처음 등교한 한국학생을 만나서 반가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미국학생이 옆에 와 서기에 우리는 영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학생이 "너희들 한국말은 영어 비슷하게 들린다."고 말해서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의 Korean Broken English의 험난한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대학원 주임교수를 만나고 처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작은 준비하고 연습한대로 잘 했는데 교수님의 영어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설명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한국말로 떠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 온 사실을 깜박 잊어버린 건망증이었습니다. 그 후에 40년을 미국에서 지내며 건망증은 해가 갈수록 더 자주 일어나는 듯합니다.

최용완 (공대 57)

남가주 : 원로선배 초청 오찬

지난 10월 29일 Los Angeles 근교, City of Industry에 위치한 Pacific Palms Resort에서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주최(회장:김병연, 공대68)로 원로선배 초청오찬 행사가 열렸다.

70세 이상 원로선배(66학번 이전)들을 초대한 이 행사는, 각 단과대 동창회와 후배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27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올 들어 제일 많은 동문들이 모인 행사였다.

민일기(약대69) 총무국장의 사회로 1부 순서가 시작되었는데, 서영란(음대75) 동문의 선창으로 교가 제창이 있었고, 김병연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창회 발전의 길목에서 선배님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후배들이 서울대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로 세계 각처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는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배들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선배님들이 힘을 모아 큰 힘을 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원로선배 초청 행사를 10여년 전에 처음 시작한 홍광식(전 공대회장, 62) 동문과 이러한 뜻있는 일을 총동창회 차원으로 확대시킨 박혜옥 직전 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기준(법대54) 전 총동창회장의 원로선배 대표 인사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원로 오찬 행사를 성대하게 열어 주신 김병연 총동창회장과 임원들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 시간은 가까운 친구들 간의 노소공락하는 시간입니다. 옛말에 지나치다 옷깃만 스쳐도 큰 인연이라고 했지요. 60억 가까운 세계 인구 중에 270여 명의 작은 인원이 한 자리에 모여 정담을 나누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고 헤어지면 서운한 소중한 동문들입니다. 이 시대에서 조심할 점은, 노년시대에는 욕심을 버려야 하며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모두 웃음) 오랜 세월 동안 귀중한 경험을 쌓아 오신 선배님들로부터 새로운 체험을 전수하고 피차 호형호제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민일기 총무국장의, 최원로 선배인 고영철(의대43), 김영기(약대46) 동문의 소개가 있었고, 2016년 남가주 동창회의 활동 보고가 있었다. 다음, 단체사진 촬영에 이어 오찬으로 계속되었는데, 40년대 입학 동문을 위한 건배와 50년대 입학 동문을 위한 건배가 있었다.

2부에서는 홍선례(음70, 문화위원장) 동문의 사회로 소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첫 번 순서는 김원선(음대 04) 동문의 첼로솔로였는데, 'Schindler's List Theme' by John Williams, 'The Swan' by C. Saint-Saens, 'Liebesfreud' by Fritz Kreisler, 세 곡을 연주하여 박수 갈채를 많이 받았다.

'존 윌리엄스의 쉰들러 리스트 주제곡'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전쟁 휴먼 드라마 영화의 주제곡이다. '생상의 백조', 이 곡은 관현악 모음곡인 동물의 사육제 중 한 곡이다. 우아하게 미끄러지는 백조를 상상케 하는 로맨틱한 첼로 솔로와, 잔 물결과 물 아래 백조의 발을 상상케 하는 피아노가 조화를 이룬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은 오스트리아의 옛 민요 춤곡인데, 그 산뜻하고 밝은 선율은 소녀가 첫 사랑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듯한 소박한 느낌이다.

다음은 제갈소망(음대02) 동문의 피아노 솔로, 'Maurice Ravel의 La vales'였는데, 이 곡은 관현악을 위한 무용시이며, 제목은 왈츠이다. 제갈소망의 혼신을 다한 연주는 동문들을 잠시 몰아의 경지로 몰아 넣었다.

다음은 유희자(음대68) 국악 무용연구소 단원인, Audrey Shim, Lynden Kim, Kaitlyn Kim세 명의 '장단은 흐르고'였는데, 이 무용은 유희자 동문의 창작무용으로, 휘모리 장단에 맞추어 북을 두드리며 추는 활기찬 무용이었다.

이어 양의경(농대 72) 동문이 최영섭 작곡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는데, 성악 전공자 못지 않은 가창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다음, 열린 Auto Harp단의 방정자(간호대62), Mrs. 김병연, Mrs. 라철삼(문리대64) 등 세 명이 '만남, 사랑해, 선구자'를 합주하였다.

이어 백정현(음대66) 동문의 팝송, 'Yves Montand의 샹송, 고엽',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등을 불렀는데, 그 감미로운 목소리에 동문들은 앵콜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환호하였다.

다음은 Mrs. 위정민(공대64) 외 5명의, '태평가'에 맞추어 추는 '부채춤'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음악회는 끝났다.

이어 민일기 총무국장의, 12월 1일에 있을 '발전기금 및 동창회 후원자 초대 모임'과, 12월 20일에 있을 남가주 총동창회 주최 '한국 국악과 LA 공연'에 대한 광고가 있었고, 원로선배 단체사진 촬영으로 이 날의 행사는 끝났는데, 동문들은 다음 모임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쉽게 헤어졌다. 〈글: 홍선례(음대70) 편집위원〉

이은종(음대 91)

피리에 대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피리'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 일반적인 의미로 빈 통에 입김을 넣어 소리를 내는 모든 악기를 피리라고 통칭했었다. 그리하여 봄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만들어 불던 버들피리를 비롯하여, 동'서양의 막론하여 리코더를 포함한 모든 부는 관악기들을 통털어 '피리'라고 칭했던 것이다.

또하나 좁은 의미의 피리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한국 전통악기에서 대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관악기로 분류되고 있는 '피리'를 말한다.

피리는 대나무를 얇게 깎아 만든 '서' 라고 하는 리드(double reed)를 음높이를 조절하는 대나무 관대에 꽂아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낸다. 저음은 굵고 폭넓은 울림을 가지며 중음은 꿋꿋하며 고음은 가늘고 청명하다. 취법에 따라 소리의 강약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표현력을 지니고 있어 강한 듯 나른거리고 푸는 듯 조이기도 하는 피리 특이의 성음은 60여 종의 국악기 중에 대표적인 악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런 시적이며 목가적인 선율의 피리는 우리 음악의 관현악에서 주선율을 담당하고, 무용 반주인 삼현육각(三絃六角)에서 주된 악기이고, 무속음악이나 민요의 반주에도 빠지지 않으며, 독주악기로도 널리 쓰인다.

피리는 옛 문헌에 따르면 서역(중동지역)을 거쳐 고구려로 들어와 삼국시대부터 우리음악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후에 시대를 거듭하며 피리는 민족의 정서와 전통에 맞도록 개량·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전통음악에 연주되고 있는 피리는 악곡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피리로 기본음과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여러 음악에서 사용되는 향피리, 애잔하고 적은 음량으로 노래의 반주음악이나 현악기 중심음악에서 사용되는 세피리, 꿋꿋한 성음으로 제례음악에 사용되는 당피리가 그 것이다. 또한1970년 이후에는 창작 한국음악이 작곡되면서 저음에 사용하는 대피리가 생성되었고, 향피리를 서양의 12음에 맞춰 연주할 수 있도록 개량해서 한국음악뿐 아니라 서양음악과도 어울려 연주되고 있게 되었다. 현재 피리는 전통과 현대,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을 넘나들며 연주되며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노년 고독을 자초하는 사람들

이종호(인문대 81)

날마다 카톡으로 좋은 글들이 들어온다. 부지런한 어르신 친구들로부터다. 최근 '절대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할 5무 인간'이란 글이 있어 간단히 소개한다. 5무 인간이란 무정, 무례, 무식, 무도, 무능한 사람을 말한다.

첫째, 무정한 사람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다. 매력이 없다. 둘째, 무례한 사람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상종할 가치가 없다. 셋째, 무식한 사람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다. 배울 게 없다. 넷째, 무도한 사람은 자기 본분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길, 아내의 길, 직장인의 길 등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산다. 다섯째, 무능한 사람은 게으르고 무사안일에 빠진 사람이다. 매사에 도움이라고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글을 읽으며 반성해 봤다. 세상엔 그래도 이와는 거리가 먼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간혹 특이한 개성과 모난 성격으로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대개 다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다.

A씨. 입만 열만 자기 자랑이다. 잘 나가던 시절 이야기, 자식 자랑 등으로 날이 샌다. 남의 말 들을 겨를이 없다. 세상이 자기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줄 아는 전형적인 과대망상형이다.

B씨. 불평불만을 달고 산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행동은 딴 판이다. 스스로에겐 더없이 관대하면서도 남에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인격자다.

C씨.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 혼자만 잘 난 줄 알아 시시콜콜 가르치려 든다. 나이가 벼슬인 양, 직위가 능력인 양 착각한다. 완장 찼다고 사람 달라졌다는 소리 듣는 기회주의자다.

D씨. 지나치게 공짜 밝히고 자기 잇속 챙기는 데는 도사다. 남의 돈은 억만금도 아깝지 않고 자기 돈은 한 푼에 벌벌 떤다. 열 번을 얻어먹어도 밥 한 번 살 줄 모를 정도로 인색한 자린고비다.

고립과 왕따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얼핏 봐서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다. 언변 좋고 실력도 갖췄다. 돈도 있다. 그럼에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 처음엔 환호하던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곁을 둔다. 겪어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만 정작 본인은 모른다. 인물보다 인품, 번지르르한 말보다는 진정성 있는 행동이 인간관계에선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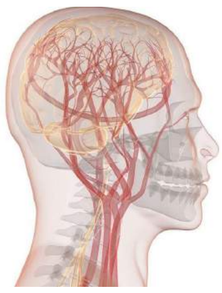
100세 시대라고들 한다. 하지만 장수가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젠 누구나 안다. 질병, 빈곤 등 노년 행복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고독도 그 중의 하나다. 2014년 시카고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은 노년 고독이 조기 사망 위험을 14%나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고독은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할 뿐 아니라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신체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노년 고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위 4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어서 빨리 바꿔나가야 한다. 카톡이나 블로그, 신문에서 매일 쏟아지는 노년 행복을 위한 좋은 글을 읽기만 할 게 아니라 한 두 가지라도 직접 따라 해 보는 것도 답이다.

논어 계씨편에는 사람의 4가지 등급이 나온다. 최상은 나면서부터 아는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다. 그 다음은 배워서 아는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 또 그 다음은 어려움을 겪은 뒤에 아는 사람(困而學之)이다. 가장 낮은 등급은 어려움을 겪고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困而不學)이다. 우린 누구나 생이지지자는 못 된다. 그렇다면 배워서라도 알아야 하고 그것도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라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노년 고독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말이다.

〈LA중앙일보 OC본부장〉

[건강] 손주 이름이 깜박깜박 나이 탓이라 생각했더니…



높은 혈압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뇌의 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 지금까지는 뇌졸중 같은 대혈관 질환에 비해 마비 정도가 덜하고 사망률이 낮아 과소평가됐지만, 소혈관 질환이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은 낮지 않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젊음이 주어진 것이라면 늙음은 이뤄내는 것이라고 한다. 건강이 딱 그렇다. 10여 년 전만 해도 나이 따라 기억력이 감퇴하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건 자연의 섭리로 여겼다. 그러나 인지·보행·우울·배뇨 장애가 뇌 속 실핏줄인 '소혈관'의 이상에서 비롯됐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는 노인증후군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뇌졸중(중풍)을 유발하는 대(大)혈관 질환에 비해 소(小)혈관 질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시간 차이가 있을 뿐 소혈관 질환이라는 머리 속 시한폭탄을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명연(68·가명)씨는 얼마 전 손자를 안아올리다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평소 끔찍이 아끼던 손자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잖아도 요즘 들어 걸음걸이가 전보다 느려진 김씨는 '이제 정말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김씨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그 원인이 단순히 나이에만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담당의사는 김씨에게 뇌 MRI 사진을 보여주며 '소혈관 질환'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인지장애·보행장애·우울증 등 유발

엄밀히 말해 소혈관 질환은 동맥, 그중 소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혈관은 마치 나무와 같다. 두꺼운 줄기에서 가지로, 다시 잎사귀로 갈라지며 온몸에 혈액을 전한다. 심장에 가까울수록 굵고 튼튼하고, 멀수록 가늘고 약해진다. 소동맥은 줄기(대동맥)와 잎사귀(미세혈관) 사이의 '가지'에 해당한다. 심장은 분당 60~70회를 박동하며 5L의 혈액을 내뿜는데, 손끝·발끝 미세혈관까지 혈액을 보내야 돼 이때의 압력은 매우 높다. 혈관벽이 두껍고 튼튼한 대동맥은 이 압력에 잘 버티지만, 소동맥은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서서히 망가진다. 얇은 고무호스에 많은 물을 반복해 흘려보내면 너덜너덜해지다 언젠가 새거나 터져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소혈관 질환이 주로 문제가 되는 곳은 뇌 쪽이다. 다른 장기에서는 잘 발생하지도 않을뿐더러 문제가 생겨도 별다른 증상 없이 넘어간다. 소혈관 질환이 뇌에 특히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로 뇌에는 대동맥에서 갈라지는 소동맥이 매우 적다. 다른 장기의 경우 같은 압력이라도 대동맥에서 많은 소동맥으로 갈라져 그 압력을 적절히 분산한다. 보통 혈관이 줄기 하나에서 많은 가지가 뻗어 나가는 구조인 데 비해 뇌혈관에선 뻗어 나가는 가지가 적다. 당연히 각 혈관에 걸리는 부하가 크다.

둘째로 뇌혈관은 우회로가 없다. 다른 장기는 소동맥이 막히거나(경색) 터지더라도(출혈) 근처의 다른 소동맥과 미세혈관을 통해 혈액을 충분히 공급해 기능을 유지한다. 그러나 뇌는 각 부위에 들어가는 혈관이 소동맥 하나뿐이다. 공급로가 막히면 혈액을 전달할 수 없다.

셋째로 뇌세포는 조그마한 손상에도 매우 예민하다. 혈액 공급이 5초만 중단돼도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 미세한 상처만 나도 마비나 장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장기의 세포는 손상에 비교적 강하다. 간, 위, 장 같은 기관은 수술이나 이식을 위해 일부를 떼어내도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한다.

중요한 건 손상 정도가 아니라 손상 부위다. 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 망가진 소동맥의 위치가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라면 인지장애, 운동능력을 담당하는 부위라면 보행장애가 나타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우울증, 배뇨장애, 흡인성 폐렴이 소혈관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이기정 교수는 "혈관이 얼마나 손상됐는지보다는 손상된 부위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며 "경색이 어디에 생겼는지에 따라 혈관성 치매가 올 수도, 혈관성 파킨슨병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혈관 질환은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대혈관 질환에서 발생한 뇌경색·뇌출혈은 심각한 수준의 마비가 매우 빠르게 온다. 큰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할 수 있다. 반면에 같은 뇌경색·뇌출혈이라도 소혈관에서 발생하면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다. 뇌에 전달되는 혈액이 감소하면 영양분이 부족해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결국 회백질이 백질로 바뀌며 각종 장애가 서서히 나타난다.

소혈관 질환 자체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뿐 장차 증상이 심각해질 위험은 아주 크다. 대표적인 예가 '무증상 뇌경색'이다. 일반 뇌경색과 마찬가지로 뇌의 혈관이 막힌 상태지만 마비 같은 증상은 없다. 마비를 일으키는 뇌 부위에 경색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증상 뇌경색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5배,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60세 이상 우울증 환자 절반에서 무증상 뇌경색을 발견했다는 보고도 있다. 학계에선 노인 10명 가운데 2~3명이 무증상 뇌경색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는 "증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중등도 이상으로 봤을 땐 노인의 30%, 경도까지 포함했을 땐 절반 가까이 소혈관 질환이 있을 것"이라며 "소혈관 질환은 매우 미세한 수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MRI로도 발견하기 어렵다"며 "MRI에 찍힐 정도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미술]

세잔의 사과

이선화 (미대 83)

역사속에서 가장 유명한 세가지의 사과로 이브의 사과, 뉴튼의 사과, 세잔의 사과가 있다.

그 중 꿈을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실천한 세잔의 사과는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정물화의 소재로 유난히 사과에 집착했다. 얼마나 사과를 끈질기게 연구하는지 그림이 완성되기전에 사과가 늘 먼저 썩었다. 탁자의 선은 수평이 맞지 않고 잘 못그린 사람이 그린것처럼 삐뚤어져 보이기도 한다. 삐뚤어진 탁자의 선은 눈과 눈 사이에 물체가 있을때 수평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지독한 관찰의 결과이며, 하나의 사과마저도 다양한 시점으로 살펴본 노력의 증거이다.

1852년 열세살 어느 날 가을, 남프랑스 엑상 프로방스의 작은 시골 중학교에 사과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들어선 소년은 전날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때 나타나 아이들을 혼내 준 덩치 큰 아이에게 다가가 바구니를 내밀었다. 병약하고 지독한 근시여서 늘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던 이 소년은 후에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에밀 졸라이며.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아이는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린 폴 세잔이다.

훗날 문학과 미술에 큰 영향을 미친 두 소년의 우정은 이렇게 고마움이 담긴 사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졸라와 세잔은 엑상프로방스의 아름다운 산천을 어울려다니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고 문학에 대한 열정과 예술적 정서를 공유하였는데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시골생활을 정리하고 파리로 떠난 졸라와 아버지의 종용에 못이겨 법대에 등록한후 낙심에 빠진 세잔은 서로를 충고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그 후 30년이상 주고받게 된다. 아마도 "물감으로 얼룩진 법관복을 입은,익명의 예술가는 되지말게"라는 졸라의 끈질긴 질타와 부추김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화가 세잔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후 남다른 자존심과 강한 기질의 두 사람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과 긴장이 찾아오는데 '목로주점'으로 세잔보다 먼저 유명해진 졸라와 자신의 예술성을 진정으로 이해 못해주는 졸라에 대한 섭섭함을 지닌 세잔 사이의 긴장감은 결국 1886년 졸라가 소설 '작품(L'oeuvre)의 등장인물 중 실패한 그림앞에서 자살하는 무능한 화가를 세잔과 닮게 묘사함으로써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긴채 끝이 나게 된다.

책을 읽은 세잔은 "이렇게 훌륭하게 추억을 담아내준데 대해 감사하네"라는 짤막한 편지를 끝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된다.

"자연의 모든 형태의 기본은 원기둥, 구, 원뿔로 함축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여 마티스,피카소를 중심으로 한 입체파와 야수파를 낳게 한 위대한 세잔이지만 에밀 졸라의 사망소식에 어릴적 소중한 추억을 함께 한 친구를 등진 채 떠나보낸 아픈 마음에 오랜 시간 참담한 고통속에 있었다는 인간 세잔의 마음을 떠올려 본다.

폴 세잔 <사과 바구니와 병이 있는 정물>

New Book

[신간 소개]

고영주 동문 '아름다운 메아리' 출간

『아름다운 메아리』(Beautiful Echo)는 한 시대가 낳은 탈북자의 참담한 자화상을 그린 소설이다. 작가는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신조어 꽃제비란 기구한 운명의 실상을 방관할 수 없었다. 탈북자는 가족을 떠나 뿔뿔이 자유를 찾는다. 그러나 정작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은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가족의 재결합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이 우리가 겪는 아픔이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통일을 외쳐왔지만 그것은 메아리 없는 공허뿐이었다.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는 불행했다. 그것은 결코 시대의 탓도, 남의 탓도 열강의 탓도 아닌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영혼의 불씨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가는 그 뜨거운 인간애의 불길을 이 소설의 주인공 한송이의 날개 짓을 통해 돌풍이 되고 태풍이 되어 한반도에 활활 타오르기를 고대한다.

우리에게 탈북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명제를 놓고 번민한 작가는, 탈북 할 수밖에 없는 한 처녀의 기구한 사연을 차마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붓을 들었다. 남북 분단의 생이별이 낳은 탈북자를 통해 인간 존엄과 현실과의 괴리를 예리한 필체로 호소한 것이다.

소설은 북한을 탈출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자 사랑하는 하나 뿐인 딸을 남으로 내모는 북녘의 어머니, 하지만 자신은 탈북을 거부하며 고향을 지키는 아이러니한 삶을 그리고 있다. 오직 자유를 찾아 가족과도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한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다. 가족을 떠나 자유를 찾지만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 이 소설은 다시 가족으로 향하는 탈북자의 마음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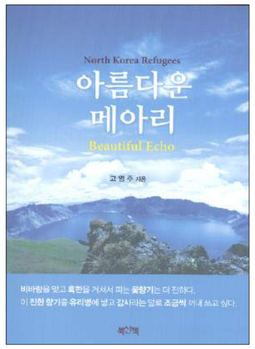
생명을 걸고 인생 전부를 걸었던 탈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왕따시키고 피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나라다. 자유의 땅을 찾아왔건만 그래서 탈북자는 외롭다. 그래서 탈북자는 울고 있다.

이 소설은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딸과 어머니의 모습, 그 뒤에 숨은 어머니의 첫사랑과의 해후, 탈북과정의 충격적인 경험을 보여주며 우리 한국인의 한과 인고의 삶을 재조명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탈북자를 도와야 하는 이유를, 저자는 억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으면서 독자들이 생각할 시간과 여백을 주고, 탈북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르지 않다고 꾸짖지 않으면서 반성할 시간을 준다.

저자는 통일을 불러올 미래, 인간 38선 탈북자를 그리며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희망을 말하고 있다.

> 어머니가 평생을 울고 있다.
> 자식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날개를
> 남과 북이 독차지하려고
>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 어머니의 포근한 품속에서
>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못난 자식들이다.
> 이 글은 고발 문학이 아니다.
> 외침의 소리도 아니고 절규의 함성도 아니다.
> 꽃피고 새우는 동산에서
> 아름다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메아리다.
> 새파란 이파리에서 아침 이슬방울이
> 산속 옹달샘에 떨어지는
> 청아한 소리이다.

70년 가까운 분단의 세월 동안, 너무도 멀어진 생활, 언어, 풍습 등은 통일이 되었을 때 장애요인이 될 것이나, 탈북자들을 통한 완충작용은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는데 좋은 가교역할이 될 것이다. 한 시대의 현상을 보여주며 주위를 환기시키고, 필요할 때 다정한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좀 더 사람다운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배려는 사랑이고, 사랑은 감동이며, 감동은 메아리라는 작가, 감동의 꽃향기가 멀리멀리 퍼지고 감동의 불길은 높이 높이 솟아오르기를 바라는 작가의 부드러운 속삭임, 미국의 소리 『아름다운 메아리』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기를 고대하며 휴머니스트 작가의 다음 작품을 기대해 본다.



〈출판사 서평에서〉

작가 소개: 모교 사대 국어교육과(63학번)대학원을 졸업하고 1981년 미국으로 이민왔다. 은퇴후 라구나 우즈에 정착한 작가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활동에 관여하면서 「우리에게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위한 자유와 인권을 알리기에는 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아 소명의식으로 『아름다운 메아리』를 집필하였다.

[문화]

밥 딜런 - 이 기회에 노벨음악상을 추가?

김인종 (농대 74)

버럭 오바마가 미국대통령에 취임한 후 얼마 안돼 그에게 노벨평화상이 수여됐다. 많은 사람들의 첫반응은, "응? 뭘했다고." 가수 밥 딜런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발표됐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은 "응? 뭘 했다고."

찬반 논쟁도 한창이다. 당장 올해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였던 일본의 하루끼 무라카미(작품 'IQ84')는 실소가 저절로 나온다. 많은 문학인들은 모욕과 분노를 표시하기도 한다. "밥딜런의 '시'는 노래를 표현하기 위한 '미디엄(매체)'이지 문학자체는 아니다" "노벨문학상은 창시자 노벨의 취지에 따라 '어떤 이상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뛰어난 작품'에 수여돼야 한다".

어떤 이들은 노벨상이 문학의 새로운 경지(노래 가사 lyrics)를 포함시키며 이분야의 발전에 또다른 방향을 주었다고 칭찬한다. "노래가사도 시의 한부분에 포함돼야 하며 대중음악, 팝가사를 정통문학에서 더이상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밥딜런의 노래가사만큼 이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은 없다"… 밥딜런에 대해서는 '블로잉 인 더 윈드(Blowing in the Wind)' 하나만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갑자기 밥딜런을 흥얼대며 그를 위대한 저항가수, 시대의 선구자 로 예찬한다. 과연?

그는 체제 안에서 저항했고, 체제 안에서 활발히 음반을 찍어내며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며 노래 한 사람이다. 미국의 자유사회가 키워낸 무늬만 반체제가수일 뿐이다. 그가 지금 라스베가스 카지노호텔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오히려 비슷한 시기 음반 하나 못내고 별볼일 없이 사회의 그늘을 찾아다니며 음악생활을 한 한국의 화가 지망생(미술대학) 김민기가 저항가수, 선구자로 불리우는게 낫겠다.

밥 딜런 1941년 5월생이니까 75살이 넘었다. 유태인의 독창성을 타고 났고, 월남전 시대에 청춘을 지내며 그의 반사회적 성품을 잘 어필할 수 있었다. 그 긴 생애동안 음악에 전념한 사람이지만 그의 노래가사들은 많은 문학비평가들의 연구대상이었고 그의 가사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다. 우리의 60, 70년대 청춘 시절 때 기타를 메고 입에 하모니카를 붙이고 등장한 인물이다. 당시 하드록(hard rock리듬을 위주로 전자악기를 스스로 연주, 노래하며 최대한의 음향을 쏟아내는 그룹 퍼포먼스)과 헤비 메틀(heavy metal 금속성의 악기들로 개인기가 화려한 무겁고 볼륨 큰 전자음향을 내며 주제도 심각하다)이 포크 (folk music), 칸추리 록같은 부드러운 음악들과 함께 융성하던 시절이다. 요즘 음악처럼 남녀 사랑타령, 얄팍한 감성에 호소하는 가사에 컴퓨터 프로그램 반주가 아니고 사회문제, 종교문제, 인간본성의 문제들을 많이 다룬 음악시대이다.

개인적으로는 당시의 밥 딜런을 조금 색다른 포맷으로 서 있던 음악인으로 평가한다. 노래는 훌륭하지 않지만 질척대는 자신만의 창법과 가래끓는 듯한 목소리로 단점을 보완했다. 작곡도 당시의 내놓으라 하는 하드록의 거장들 레드 제플린, 스팀즈, 디퍼플, 스틱스, 그랜드 펑크의 음악들에게는 그 깊이나 난해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비틀즈나 롤링스톤즈, 애니멀즈 같은 팝 록커들의 노래가사에도 밥 딜런 정도의 문학성들은 무한히 발견된다(에스터데이 Yesterday, 와일드 호스이즈 Wild Horses,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House of the Rising Sun 등등). 비슷한 장르로 비교를 한다면 포크, 칸추리 뮤직에서 피터 폴 앤드 메어리, 사이몬 앤드 가펑컬, 존 덴버등과 견줄수 있겠지만 이 역시 가사나 작곡 등에서는 밥 딜런이 한 수, 아니 여러수 떨어진다. 정통 영문학도로서 동부 아이비리그 출신인 폴 사이몬의 가사들은 그 깊이와 철학성, 운문의 구조에서 정통시를 능가한다(에이프릴 April,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Sound of Silence, 스카보로우 페어 Scarborough Fair 등 무수하다). 차라리 사이몬 앤드 가펑컬이이번에 노벨문학상을 탔다면 지금처럼 찬반논쟁이 시끄럽지는 않을 것이다.

말은 안하지만 많은 팝 음악인들이 밥딜런의 음악에 대해 속으로는 '야, 나도 맘먹으면 그정도는 할 수있다'고 중얼댄다. 대부분 문학인들은 노벨상 위원회가 약간 오버했구만 하며 혀를 찬다. 문제는 밥딜런의 속마음이다. 노벨상 수상자로 발표된지 몇주가 지나지만 가타부타, 좋다 싫다, 받겠다 말겠다 말이 없다. 아마 이글이 실릴 때 쯤이면(지금은 10월 27일이다) 밥딜런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겠다. 노벨상위원회가 밥 딜런의 무반응, 무소식에 신경질을 내고 있지만 위원회가 이번에 아마 떡주고 뺨맞을지도 모른다. 밥딜런의 성격으로 보면 노벨상 수상식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아예 거부할지도 모른다. 그 스스로도 '내가 무슨 노벨문학상이냐' 라며 떨떠름한 기분일지도 모른다. 내가 보기에 그는 노벨상 취향이나 자격이 아니다. 강제로 떠안기기 전에는.

〈서울농대 그룹사운드 샌드페블즈 4대 기타〉

[수필]

레드라인

강신용 (사대 73)

술 중에 제일 좋은 술은 무엇인지 아세요? 쟈니 윤이 사회를 보면서 청중들에게 묻는다. 희귀하고 비싼 술들을 말하지만 대답을 맞추는 사람이 없다. 사회자가 정답은 '입술'이라고 엉뚱하게 말하자 한참동안 웃는다. 입술 중에도 빨간 립스틱 입술이 최고란다.

빨간색은 강렬하다. 빨간색 장미는 정열적인 사랑이고 유혹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지를 꺾고 소유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술한 가시는 궁전을 지키는 병사와도 같다. 꽃 중에도 빨간 꽃이 유난히 많은 것은 생존을 위한 자연의 법칙인지도 모르겠다.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태초의 색감으로 더욱 강렬하다.

빨간 신호등은 멈추라고 지시한다. 멀리서도 빨간색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차할 것을 준비한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가 보라. 자신도 죽지만 상대방은 졸지에 비명횡사할 수도 있다. 사거리의 STOP 사인도 빨간 색이다. 오는 순서대로 지나가라고 만든 신호 대기 표시판이다.

레드라인은 최후의 금지선을 의미한다.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전쟁에서 넘을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말로만 겁주고 행동은 보이지 않는 레드라인을 비굴한 금지선으로 만들었다. 전쟁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립 서비스는 잘 했다.

50년 만에 이룩한 한반도의 기적이 푸틴 스타일로 점령된다면 우리의 형제자매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일주일이면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도 폐허가 될 수 있다.

세금보고에도 RED FLAG가 있다. 납세자와 국세청은 숨바꼭질을 한다. 납세자는 자신의 수입을 줄이고 숨기려 하고 국세청은 온갖 방법으로 추징하려고 한다.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회계사는 감사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레드 플래그의 위험성을 누누이 강조한다. 말과 실제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문제는 심각해진다. 일단 빨간 줄이 이름 밑에 쳐지면 두고두고 어렵다.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겨울이다. 엎친 데 덮친다고 이 와중에 의료보험에 가입도 해야 한다. 마지막 신고일을 앞두고 세금보고 한 철을 다 보낸다. 무료 의료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더 걱정이란다. 불확실한 경험으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저소득 무상 의료 대상은 되기 싫은 것이 우리 동포의 심정이란다. 봄은 멀었는데 속은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다.

정치인과 사기꾼은 사주팔자가 같다고 한다. 말로 먹고 말로 살고 말로 죽는다고 해서 하는 농담이다. 요즈음 현란한 말솜씨에 한껏 부풀었던 희망이 허망해졌다. 지표로만 좋은 경제가 체감으로 느낄 수가 없다. 본시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오고 세금 낼 때는 손해라고 한다지만 온통 적자투성이다. 모두가 너무나 지쳐 있다.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지만 쌓이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행동도 필요하다.

부모는 벼랑 끝에 서있다.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살림살이 걱정하랴, 날뛰는 아이들 교육비에, 오바마 건강보험료 준비해야지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자니 사면이 갑갑하다. 세금이라도 적게 낼라치면 IRS 감사까지 걱정해야 하는 세금보고 철이다.

편안히 사는 방법은 있다. 적당히 내려놓고 물갈이 사는 거다.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지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빨간 신호에는 쉬고 파란 불에 술술 넘어가는 거다. 레드라인이 앞길을 막으면 물갈이 돌아가면 된다.

〈CPA, LA 한국일보에도 게재됨〉

원고모집합니다

12월호는 '나눔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내가 나눈 나눔, 내가 받은 나눔과 감사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외에도 일반 원고, 시론,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500 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고화질)을 보내주세요. '이달의 사진'과 '서울대 학창시절의 사진'도 보내주세요. 앨범 사진을 스캔하든가, 셀폰(고화질)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고 동창회에 대한 질문이나, 주소정정, 회비/후원금 등의 사무적인 일은 general@snuaa.org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atom美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ATOMY 회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sbb HEMOHIM
헤모힘은 한국원자력 연구원과
콜마 BNH사의 기술로 개발,
면역기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에터미 헤모힘(atomy hemohim) 콜마 BNH 회사 한방 발효 생명공학 기술과 원자력 연구소 특허 !

가벼운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병원 감염으로 사망!!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방사선생명공학연구센터 조성기 박사팀 10 년 연구!!

면역강화, 감기, 고혈압, 관절염, 당뇨, 다이어트, 빈혈, 손발저림, 변비, 불면증, 안구건조, 어깨결림, 만성피로, 갑상선기능항진증, 항암보조

당귀, 천궁, 백작약 등 한국 고유의 생약제 3 종을 혼합, 제조한 복합 추출물로 만든 생약재, 면역성이 홍삼의 17 배, 산삼의 4 배, 6 년근 인삼의 103 배 임을 원자력 기구인 IAEA 에 출품 자료에서 발표.

서울대학교 의학교재에 실린 헤모힘

건강하신 분은 건강을유지 내몸이 어딘가 안좋타고 느끼시는 분은 드시는 순간 효과

♣헤모힘으로 내 몸에 면역을 강화 하자!!!

임 낙 균 (약대 64)

Econo Pharmacy
15435 S. Western Ave. #100-C
Gardena, CA 90249
(가데나 문화센타 몰내)
Tel: (310) 353-2699

Los Angeles Drugs
3030 W. Olympic Blvd. #118
Los Angeles, CA 90006
(V.I.P. Plaza 내)
Tel: (213) 387-3030

[여행기]

50일간의 세계 일주 (2부)

여행을 처음 기획할 때 난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경험이 있어 움직이는 것이 남이 보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하루 일과를 빽빽하게 만들어 움직였다. 그리고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느슨하게 하는 일정으로 짰다. 그래서 간 곳이 몰디브섬. 듣던대로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움 그 자체다. 산호의 반사로 만들어내는 그 옥색의 칼라는 몇년전 환갑기념으로 방문했던 타히티섬에서 익히 경험한 바이지만 여긴 여기대로 새로운 맛을 제공해주고 있다. 폭발사고후 이스탄불을 탈출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용틀음을 쳐도 안되더니, 여기 호텔 카운터의 도움으로 예상치 않게 쉽게 업그레이드되어 수상가옥에서 지내는 영광을. 그런 것이 인간사인가 싶다. 그저 다양한 색깔의 바다, 황홀한 석양…축복받은 곳이라 생각했다. 이곳의 젊은이들에게 어디에 가고 싶냐고 물어 보니 놀랍게도 라스베가스, 뉴욕이란다. 누구나 가까이에 있는 행복은 보지 못하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기대와 그리움이 있는 것이 동서고금 나이를 떠나 똑같은가 보다.

세계 어디나 중국 관광객이 많았지만, 태국은 유독히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었다. 과거 '80년대에 출장다니면 깃발을 들고 일본관광객들이 세계를 휩쓸더니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인데 사람만 중국인으로 바뀌었다. 부자인 인구만 해도 한국인구를 넘어간다니 가끔 스케일이란 단어를 다시 기억하고 씁쓸해 한다. 파타야, 방콕등을 둘러 보고 물려받은 좋은 유산의 관광지가 있는데도 기대보다는 운영치 못한다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역사가 짧은 그리고 문화적인 열등감이 있는 이 미국을 생각할 때 참 아쉬운 곳이다라고 느꼈다.

다시 고온다습으로 지쳐있을 것을 대비해 끼워 넣은 곳이 피지섬. 신혼 여행으로 많이 온다는 곳인데 실제 그렇게 보였다. 조용히 작은 섬에 그대로 푹 쉬는 모드로. 집사람은 처음부터 준비해온 수채화 도구로 그간의 본 풍경과 여기의 모습을 담느라 바쁘다. 하나의 민족이 이동해와서 다른 나라의 무시 못할 구성원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카라비안의 트리나다드에 이어 여기의 인도인들이 그랬다. 부부가 잠시 갈라섰다.

신규천(상대73)/조경희(가정대72) 부부 @시드니 (이름 바로잡습니다)

난 일로 오사카로 집사람은 친구가 있는 뉴질랜드로 갔다가 다시 호주의 멜버른에서 만났다. 여기는 남반구. 유럽 도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 조카딸 가족과 같이 협궤열차를 타고 Puffing Billy 라는 곳을 가는 과정이 동심으로 돌아간 듯했다 - 창문으로 다리를 내놓고, 우리에게 손 흔들어주는 이들에게 우리도 손 흔들며. 매번 호텔에서 자다가 집이라는 곳에서 자니 느낌 자체가 달랐다. 7년만에 다시 가본 시드니는 그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 보지 못한 곳을 선정한 것도 있었지만 밤에 같이 여행객들과 어울려 해안을 거닐어보고 석양을 바라보며 식사한 기억은 두고두고 기억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 캔버라를 며칠을 두고 봤다. 과거에 전쟁기념관에서 본 한국관의 규모가 줄었지만 새로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있었다. 그때, 여기 전쟁기념관을 보았을 때 가졌던 생각, 호주는 온갖 전쟁에 다 간섭하여 참전하였구먼 하고 시니컬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번에는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 있는 문구처럼 그 국가와 국민을 모르는 나라를 위해 젊은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워준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고 고쳐 먹고 나도 모르게 한국전 희생자 기념비 앞에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들이여, 감사하다. 진정한 감사는 그들이 지켜주려했던 이 나라가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 답례라 생각했다.

동에서 서로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정확히 50일을 부부가 같이 다녔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이모양 저모양으로 주제를 가지고 또는 흥미를 위한 여행을 즐기고 있었지만 50일을 부부가 같이 여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세계 여행을 경험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흔히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과 개인적으로 피지섬이 90번째 방문국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우리가 본 세상은 우리가 인식한 그 이상이었다. 자연의 웅대함, 신비함, 경이로움은 차지하더라도 사람들이 빚어낸 조형물과 회화 작품들까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기 힘들었다. 미숙한 표현 너머 있는 큰 세계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어 우리 부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림과 동영상으로 조그마한 글로 하여 뉴저지의 한 화랑에서 'Memories of 50-day world tour' 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End〉

Maldives Hotel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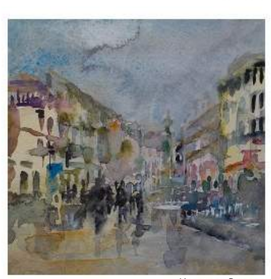
Maldives Hotel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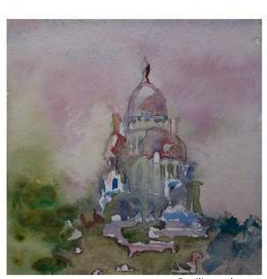
La Ped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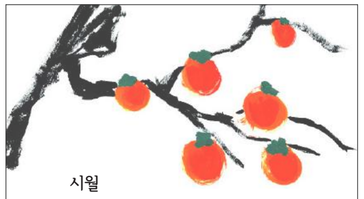
Montmartre

Viggeland Park

Elephant Show


Kerntner Strasee


Basilique du sacr



시월

서윤석(의대 62)

모든 정열 다 불태우고
온 천지에 잔치를 벌리는
시월

동이 트면
살며시 일어나
아침이슬 걷어내고
오백 마일을 활활 태우는 시월

마을에는
마을에는
수줍어하는 코스모스가
시려운 물가에서 피고
노란 감알들이 가지에 매달려 웃는
오래 오래 더
같이 살고 싶은
시월

심술 궂은
바람이 불면
사과나무씨를
언덕에 심어놓고
파란 얼굴이 되어
가버리려는
시월

독자의 광장

11월호를 읽은 독자들의 소감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news@snuaa.org

김한신(인문대92)씨가 쓰신 대련에 관한 글(9월호)을 반갑게 읽었습니다. 일제시대에 대련에서 유년기와 소년기를 보낸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9세기말 대련은 일개 어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동항구를 노리던 러시아가 점령후 불란서에서 공부한 러시아 건축가로 하여금 동양의 파리를 만들겠다고 원형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선형 도로를 내어 새 도시 기초를 건설했습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광장이 中山광장으로 제가 2008년에 방문했을 당시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시청, 야마또호텔 (대련빈관), 부친이 다니시던 조선은행 지점등을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일본이 점령한 후에도 고층건물은 지금처럼 많지 않아서 온 시내가 아담하고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외국 영사관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변에 해수욕장이 많아서 시내전차로도 갈 수 있지만 기차로 몇 정거장만 가면 더 한적하고 특징이 다른 해수욕장들이 한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만주의 남단이지만 겨울은 꽤 추워서 우리가 살던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거대한 만주철도회사 대련병원(지금은 의대부속병원)을 지나가면 나타나는 꽁꽁언 호수에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온식구가 즐겼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아이스쇼하듯 판을 쳤습니다. 대련시내는 거의 다 일본인들이 살고 러시아 혁명시 피난온 러시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로 부두노동등을 하며 살던 중국인들은 시내에는 별로 없고 교외 한곳에 몰려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출발하는 11호 전차가 그들의 전용차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차별대우가 심해서 중국옷을 입은 사람은 고급호텔 출입도 뒷문으로 해야 했습니다.

만주에서 살면서 제가 접촉한 중국사람은 일본국민학교의 같은 반에 있던 부자집 딸, 석탄불 냄새나는 우리 아파트 지하실에서 살며 증기난방보일러와 쓰레기처리를 맡은 사람 가족, 그리고 매일 멀리서 리어카에 야채를 싣고와서 파는 행상이 다였습니다. 학교나 사십여 가족이 살던 아파트나 한국사람은 우리 식구뿐이었습니다. 조선은행에 다니던 총각 두분 말고는 딴 한국인은 만난적이 없습니다. 이차대전 말기가 되면서 일본이나 한국은 물자가 귀해가는데 대련은 연합군 잠수함 때문에 뱃길이 끊어져 농산물은 물론 만주전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자가 넘쳐흘렀습니다.

다행이 우리는 해방 일년 전에 부친이 대전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질이 나쁜 쏘련군인한테 시계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대련 정거장에서 떠날 때 일본인 전송객하고 떨어져 멀리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있는 중국인 두 분이 있었읍니다. 한 분은 아파트의 보일러 아저씨고 또 한 분은 야채행상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동안 친절히 사람으로 대해준 결과입니다. 학교에서 가끔 원족을 가던 여순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감옥이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직접가서 그곳 기록을 보니까 종전 후에도 사형수 몇명이 스케줄대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고지식한 것도 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방 후에 일본에서 출판된 책을 몇권 보니, 종전 후 대련에서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중국인한테 별로 보복을 받은 일도 없고 살던 집에서 길게는 3년까지 살다 나왔다고 합니다. 주둔한 쏘련군도 비교적 신사적이어서 이따금 시계를 빼앗긴 정도라고 합니다. 북만주에서는 강간도 많이 당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대련의 일본 헌병대장이 러시아계 유태인을 격리수용하라고 상부지시를 받았는데 종전이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차일피일 시일을 끌은 공으로 이스라엘에서 명예시민증과 급이 높은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Schindler 같은 사람이었는지 중국인 사상범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임영신 (의대 52)

[문화산책]

칵테일 상식 - 시리즈 6

김창수 (약대 64)

지난 5 회에 걸쳐 각종 위스키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 몇 시리즈에 걸쳐 위스키를 사용한 여러 칵테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맨해튼(Manhattan)은 위스키에다 스위트 버므스(Sweet Vermouth)와 비터스(Bitters)를 탄 것이다. 칵테일 중에서 제일 많이 찾는 것이 나중에 기술할 마티니(진에다 버므스를 섞은 것)이고, 그 다음이 맨해튼이다. 그래서 마티니를 칵테일의 왕이라고 하고, 맨해튼을 칵테일의 여왕이라고 한다. 맨해튼은 1870년대 중반 뉴욕 주지사 사무엘 존스 틸든을 경축하기 위해 랜돌프 처칠의 부인(윈스턴 처칠의 어머니)인 제니 제롬 여사가 베푼 만찬에서 아이엔 마샬이란 사람이 만든 칵테일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 파티 장소가 맨해튼 클럽이라는 호텔이어서 그 칵테일을 맨해튼이라고 하였다.

맨해튼에 들어가는 위스키는 원칙적으로 라이(Rye)위스키를 말하는데, 버번이나 블렌디드 위스키를 사용해도 된다. 처음에는 주로 미국 위스키를 사용했으나, '주류제조판매금지시기'(1920 – 1933)를 거치면서 미국 위스키를 쓸 수 없게 되자 캐나디언 위스키도 맨해튼에 쓰게 되었다. 맨해튼은 위스키에 버므스를 탄 것이지만 그 처방도 여러 가지이고 원료도 복잡하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처방이다.

스위트 맨해튼: 위스키 2, 스위트 버므스 1, 비터스 한 방울. / 드라이 맨해튼: 위스키 2, 드라이 버므스1, 비터스 한 방울. / 퍼펙트 맨해튼: 위스키 2, 스위트 버므스 ½, 드라이 버므스 ½, 비터스 한 방울

맨해튼은 이상의 재료를 얼음 위에 부으면 '온더락'이 되고, 얼음과 같이 셰이커에 넣어 믹스한 후 차가운 잔에 부으면 '스트레이트 업'(Straight Up)이 된다. 여기에 체리 한 개를 넣는데, 디너 후에 키스를 할 때 체리가 입 냄새를 향긋하게 한다고 해서 여자들도 좋아하는 칵테일이다. 취향에 따라 레몬 껍질을 넣어도 된다. 필자는 '와일드터기 퍼펙트 맨해튼 스트레이트 업 위즈 레몬 트위스트'를 선호한다.

맨해튼 처방에 미국산 위스키 대신 스카치 위스키를 넣으면 러브 로이(Rob Roy)가 된다. 러브 로이에는 체리 2 개를 꼬챙이에 끼워서 잔 위에 올려 놓는다. 러브 로이는 1894년 맨해튼에 있는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어떤 바텐더가 처음 만들었다. 그 이름은 스코트랜드의 로빈 후드라는 별명이 붙은 반란군 로버트 로이(Roy) 맥그리저(1671 – 1734)를 소재로 한 오페라의 초연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CPA, 경영대학원 68, 논설위원〉

이달의 사진

'은하수' 김영덕(법대 58)

Exif: Canon 5D MarkII, f2.8, 30 sec, ISO 3200, 16mm, Auto W.B., Manual

California, Lone Pine 근처 White Mountain 밑자락 Alabama Hill 에서 밤 중에 찍은 은하수(Milky Way) 사진입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

이수영 (약대 90)

한국 텔레베젼 쇼를 보다보면 과거 회상 장면이나 향수를 자극하는 장면에 단골로 나오는 음악 중에는 시네마 천국의 배경음악이 있다.

엔리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아름답고 사랑받는 만큼, 우리세대 모든이들의 좋아하는 영화리스트에는 시네마 천국이 꼭 들어있다. 자막이 필요한 유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과 닮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시네마 천국이란 작은 동네 영화관의 흥망성쇠와 함께 그려진 주인공의 삶은 전후 가난했던 유년기와 첫사랑에 설레이고 아파하던 청년기와 왠지 쓸쓸한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어두울 수 있는 전후 가난한 이태리, 시칠리섬 동네 이야기를 발랄한 아이들과 재밌는 에피소드들로 유쾌하게 그렸다. 맨발의 가난한 아이들이 한 줄로 서 있으면 그들의 머리는 까까머리로 삭발되고 벼룩이나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화학가스가 그들의 맨몸에 뿌려진다. 유년기의 토토는 가난했다. 토토의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전사하였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젊고 아름다워서 더 슬퍼보인다. 밤늦게 영화를 보곤하는 토토는 신부님을 보좌하는 중에도 졸기 일쑤고, 가연성 필름을 침대밑에 모았다가 화재를 낼 뻔한 말썽꾸러기이다.

그러나 토토는 영화가 있어 행복했다. 키스장면을 검열하는 사제와 영사기사인 알베르토(필립 느와레) 몰래 숨어서 영화를 보며 미소짓던 토토의 환한 얼굴은 그가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준다. 토토에겐 영화표를 미처 못 사 밖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위해 영사기를 돌려 광장의 벽에 프로젝트하는 알베르토가 마술사와 같이 위대한 존재이다. 토토가 알베르토의 초등 검정고시를 도와주며 그 보답으로 알베르토는 영사기 다루는 법을 토토에게 가르쳐 준다. 알베르토가 사고로 시야를 잃으면서 어린 토토는 시네마 천국의 영사기사가 된다.

청년기의 토토(마르토 레오나르디)는 새로 산 활동카메라를 들고 동네 곳곳을 찍다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소녀, 엘레나(아그네스 나노)를 필름에 담게 된다. 알베르토 이야기속의 근위병처럼 끈질긴 구애 끝에 그녀의 사랑을 얻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부유한 엘레나의 아버지는 가난한 토토를 떼어놓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군면제인 그를 군대로 징집보내 버리고, 마지막 만날 수 있는 기회마저 그들의 운명처럼 엇갈려 버린다. 알베르토는 제대 후 돌아온 토토를 더 넓은 세상 (로마)으로 보내며 "좋아하는 일을 해라. 절대 고향으로 돌아오지 마라."고 충고한다.

중년의 토토(자끄 페렝)는 유명한 영화감독으로 성공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그의 일상은 무미건조해 보인다. 알베르토의 부고를 듣고 토토는 30년만에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온다. 그의 노모는 버선발로 대문으로 나가 토토를 맞이하고 그가 뜨던 뜨개질의 실은 다시금 길게 풀리며 과거의 오해가 풀릴 것을 예고한다.

시네마 천국의 캐릭터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인물들 중 하나는 알베르토(필립 느와레)이다. 그에게 토토는 영화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성가신 동네꼬마였다. 저녁 퇴근길에 우유살 돈으로 영화를 보고 나온 토토를 야단치는 젊은 엄마에게 은근 슬쩍 영화관에서 주운 돈이라고 지폐를 쥐어주는 알베르토는 한없이 인정스럽다.

이후 알베르토는 토토와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누게 되고 삶의 깊은 지혜를 전해주는 토토에겐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된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많은 이들은 자문하게 된다. 토토를 자식처럼 사랑하는 알베르토는 도대체 "왜" 토토의 첫사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지 않았고 토토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을까? 아마 배움과 성공에 목말랐던 알베르토는,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의 애절함과 향수를 통해 토토가 예술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되어 그의 꿈을 이루길 바랐던 것이리라. 또다른 질문하나, 고향을 떠나 꿈을 이룬 중년의 토토는 과연 행복할까? 외관상 성공은 했지만 아직도 못이룬 첫사랑을 그리며 한 여자에게 정착하지 못한 살바토레는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인물이다. 한편 엘레나는 현실에 충실한 인물이다. 과거는 과거로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며 이별을 고한다. 만일 토토와 엘레나가 젊은 시절 맺어졌더라면 그들의 현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며 부질없는 상상을 해 본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베르토를 연기한 필립 느와레는 프랑스 배우이다.

영화를 불어로 촬영하고 나중에 이태리어로 더빙했다는 후문이 있다. 이 배우가 좋아서 그가 나오는 " 일 포스티노(우체부)"라는 영화도 보았다. 그 나름대로 신선한 영화였으며 무엇보다고 우체부역으로 나오는 배우의 연기가 자연스러워 인상에 많이 남는 영화이다.

편 집 후 기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생각해보면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의 연속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가 나눔이 아닐까요? 12월호의 특집이 '나눔 이야기' 입니다. 작년 12월에 본보 편집위원 13분이 각자의 나눔의 경험 이야기를 내 놓았지요. 내가 남을 도운 이야기, 또는 남의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100단어 이내로 써서 news@snuaa.org로 보내주십시오. 새로 발족하는 나눔위원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동창회 사무실 general@snuaa.org로 연락주시구요. 이야기도, 마음도, 소유한 재능도 우리 회보를 통해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편집장

2차년도 회기: 동창회비 (2016. 7 ~ 2017. 6)

8월호부터 동창회비 2차년도 회기 명단 **10월 말까지 회비납부 665명 / 총회원 7019명**

Tax Exempt - Federal TIN: 13-3859506

동창회비:

남가주
S.CA/NV

강경수(법대 58), 강동순(법대 59),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강홍제(상대 53), 강희창(공대 57), 고석규(치대 65), 고영순(음대 59), 고용규(의대 69), 공대용(공대 65), 곽웅길(문리 59), 권기상(경영 72), 권영재(의대), 권처균(공대 51), 김건진(문리 62), 김경수(치대 58), 김경숙(간호 68), 김광은(음대 56), 김규현(법대 53), 김기태(의대 52), 김기형(상대 75), 김동산(법대 59), 김병연(공대 68), 김병완(공대 58), 김석두(농대 58), 김석홍(법대 59), 김선기(법대 59), 김성복( ), 김성옥(간호 81), 김성환(의대 65), 김수영(사범 57),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김 영(수의 63), 김영덕(법대 58), 김용재(의대 60), 김원경(약대 59), 김인종(농대 74), 김일영(의대 65), 김재종(치대 62), 김정애(간호 69), 김종표(법대 58), 김준일(공대 62), 김창무(음대 53), 김태윤(법대 53), 김택수(의대 57), 김홍묵(문리 66), 김희자(간호 64), 김희재(사대 63), 김희창(공대 63), 나두섭(의대 66), 나민주(음대 65), 나승욱(문리 59), 노명호(공대 61), 문덕수(공대 73), 문병길(문리 61), 문인일(공대 51), 민병돈(문리 58), 민수봉(상대 55), 박대균(수의 57), 박부강(사대 64), 박성욱(상대 58), 박영희(음대 66), 박우성(상대 77), 박인수(농대 64), 박인창(농대 65)

박일우(의대 70), 박제인(약대 60), 박찬호(농대 63), 박창규(약대 59), 박취서(약대 60), 박태호(치대 66), 박혜옥(간호 69), 박희자(음대 68), 방명진(공대 73), 배병옥(음대 58), 백소진(문리 55), 백옥자(음대 71), 백혜란(미대 70), 변영근(수의 52), 서동영(사대 60), 서영석(문리 61), 서치원(공대 69), 선우원근(공 66), 성주경(상대 68), 손기용(의대 55), 손영아(음대 85), 손학식(공대 61), 신동국(수의 76), 신상화(공대 58), 신정식(상대 64), 신정연(미대 61), 심상은(상대 54), 안병일(의대 63), 양승문(공대 65), 양운택(의대 58), 양창효(상대 54), 양태준(상대 56), 염동해(농대 74), 오송자(사대 59), 오양숙(간호 60), 우춘식(상대 61), 위종민(공대 64), 유석홍(상대 61), 유의영(문리 56), 유재환(상대 67), 유진형(상대), 육태식(의대 61), 윤경민(법대 55), 윤용길(공대 55), 이건일(의대 62), 이 관(공대 55), 이규달(의대 62), 이근웅(의대 61), 이명선(상대 58), 이미정(의대 78), 이방기(농대 59), 이범식(공대 61), 이병준(상대 55), 이서희(법대 70), 이성숙(공대 56), 이소희(의대 61), 이영일(문리 53), 이원익(문리 73), 이원택(의대 65), 이장길(치대 63), 이재권(법대 56), 이재선(농대 58), 이정근(사대 60), 이정화(공대 52), 이정희(음대 55), 이종도(공대 66), 이종묘(간호 69), 이준호(상대 65), 이중희(공대 53), 이창무(공대 54)

이채진(문리 55), 이 청(농대 61), 이청광(상대 61), 임동규(미대 57),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대 58), 임진환(치대 68), 임창희(공대 73), 임화식(치대 59), 장 준(인문 85), 전상옥(사대 52), 정동구(공대 57), 정연웅(상대 63), 정예현(상대 63), 정임현(문리 66), 정재화(상대 59), 정재훈(공대 64), 정철륭(의대 55), 정태무(사대 44), 정현진(간호 68), 정 황(공대 64), 제영혜(가정 71), 조동준(의대 57), 조만연(상대 58), 조상하(치대 64), 조재국(농대 67), 조재길(사대 61), 조정시(공대 60), 조충자(간호 61), 주정래(상대 65), 지인수(상대 59), 최덕순(간호 59), 최복영(사대 56), 최용완(공대 57), 최종권(문리 59), 최 철(의대), 하기환(공대 66), 한근배(공대 65), 한정헌(치대 55), 한종철(치대 62), 한홍택(공대 60), 한효동(공대 58), 허영진(문리), 홍선례(음대 70), 홍성선(약대 72), 홍수웅(의대 59), 홍순택(사대 59)

북가주
SAN FRANCISCO

강명식(의대 61), 강재호(상대 57), 공순화(사범 56), 권오형(사대 61), 김명환(문리 67), 김병호(상대 57), 김영춘(수의 64), 김윤범(의대 54), 김정복(사범 55), 김정희(음대 56), 김현왕(공대 64), 남승채(공대 66), 노문희(사대 59), 민병곤(공대 65), 박경룡(약대 63), 박노면(사대 50), 박서규(법대 56), 박원준(공대 53), 손창순(공대 69), 안병협(공대 58)

오명주(간호 77), 온기철(의대 65), 원미랑(미대 65), 윤진자(미대 60), 이관모(공대 55), 이문영(문리 61), 이장우(문리 72), 이현숙(사대 62), 이홍기(공대 62), 임정란(음대 76), 정규남(공대 52), 정진수(공대 56), 최경선(농대 65), 홍병익(공대 68), 황동하(의대 65), 황만익(사대 59)

뉴욕
NJ/NY/CT

강영선(공대 50), 강충무(사대 60), 계동휘(치대 67), 곽노섭(문리 49), 곽상준(약대 55), 곽선섭(공대 61), 권문웅(미대 61), 권영국(상대 60), 금영천(약대 72), 김광현(미대 57), 김동완( ), 김동진(약대 56), 김동환(약대 56), 김명철(공대 60), 김문경(약대 61), 김병권(문리 63), 김병숙(보건 64), 김봉련(사대 54), 김상만(법대 52), 김석식(의대 58), 김석자(음대 61), 김성현(약대 56), 김수일(약대 60), 김영애(사대 56), 김영철(의대 55), 김예흠(의대 55), 김용술(상대 56), 김용연(문리 63), 김우영(상대 60), 김윤수(상대 50), 김정순(법대 53), 김정희(간호 69), 김종현(법대 57), 김창섭(공대 2?), 김창화(미대 65), 김현중(공대 63), 김현희(간호 59), 김훈일(공대 60), 문석면(의대 52), 민발식(의대 60), 민인기(의대 67), 박건이(공대 60), 박경숙(간호 71), 박수안(의대 59), 박순영(법대 56), 박승화(간호 69), 박영태(상대 63), 박진우(상대 77), 박현성(약대 60), 방준재(의대 63), 배명애(간호 47)

배상규(약대 61), 변건웅(공대 65), 서경애(음대 67), 서병선(음대 65), 서상철(의대 50), 서정웅(약대 63), 선종칠(의대 57), 성기로(약대 57), 손갑수(약대 59), 손경택(농대 57), 손완배(농대 70), 송병문(공대 62), 송영순(사대 60), 송영우(사대 64), 신규천(상대 73), 신달수(공대 59), 신의정(음대 55), 심영석(공대 76), 안용희(사대 49), 안재현(상대 62), 양명자(사대 63), 양문석(상대 54), 염극용(의대 54), 우관혜(음대 63), 우대식(문리 57), 우상영(상대 55), 유영호(의대 52), 유재섭(공대 65), 유택상(문리 58), 육순재(의대 63), 윤봉균(사대 54), 윤신원(의대 50), 윤영섭(의대 57), 윤인숙(간호 63), 윤정옥(약대 50), 이강욱(공대 70), 이규호(공대 56), 이능석(의대 57), 이대영(문리 64), 이수호(보건 69), 이영숙(간호 56), 이운순(의대 52), 이유성(사대 57), 이재원(법대 60), 이정은(의대 58), 이종석(상대 57), 이종환(법대 51), 이중춘(공대 56), 이진자(간호 60), 이태상(문리 55), 이태안(의대 61), 이한수(의대 55), 이희자(간호 70), 임공세(의대 61), 임광록(간호 72), 임재락(보건 68), 임충섭(미대 60), 장화자(간호 60), 전병삼(약대 54), 전성진(사대 58), 정인식(상대 58), 정창동(간호 45), 조규웅(의대 59), 조아미(음대 61), 조정현(수의 58), 조종수(공대 64), 주공로(공대 68), 최구진(약대 54), 최영태(문리 67), 최영혜(간호 64)

최형무(법대 69), 한승순(간호 70), 한태진(의대 58), 함종금(간호 66), 허경열(의대 73), 허병렬(사범 42), 허선행(의대 64), 허유선(가정 83), 현영수(음대 61), 홍선경(의대 58), 홍정표(음대 67)

뉴잉글랜드
MA/RI/NH/ME/VT

고일석(보건 69), 김경석(공대 70), 김문소(수의 61), 김선혁(약대 59), 김인수(사대 55), 김정환(공대 52), 박영철(농대 64), 박종건(의대 56), 박종승(의대 56), 윤상래(수의 62), 이금하(문리 69), 이희규(공대 69), 장용복(공대 58), 정선주(간호 68), 정태영(문리 71), 조성호(공대 85), 최선희(문리 69)

달라스
LA/DALLAS

박영규(사대 66), 박준섭(약대 63), 유 황(농대 56), 윤귀현(공대 77), 전중희(공대 56), 조진태(문리 57), 탁혜숙(음대 67)

록키마운틴스
MT/CO/WY/NM

송요준(의대 64), 이경화(의대 56), 이석호(공대 66), 표한승(치대 58)

미네소타
MINNESOTA

김영남(사범 53), 김영화(문리 65), 남세현(공대 67), 변우진(인문 81), 성욱진(치대 87), 송창원(문리 53), 왕규현(의대 56), 주한수(수의 62), 황효숙(사대 65)

샌디에고
SAN DIEGO

강영호(의대 57), 김계윤(의대 57), 김기준(공대 61), 남장우(사대 56), 박우선(공대 57), 이문상(공대 62), 이영모(의대 55)

이영신(간호 77), 임춘수(의대 57), 전원일(의대 77), 진성호(공대 64), 진주디(문리)

시카고
IL/IN/WI/MI

강영국(수의 67), 강화영(문리 50), 고병철(법대 55), 구행서(공대 69), 김갑조(간호 51), 김갑중(의대 57), 김규호(의대 58), 김성일(공대 68), 김연화(음대 68), 김용주(공대 69), 김일훈(의대 51), 김재석(의대 61), 김정수(문리 69), 김정주(문리 60), 김현배(의대 66), 김현주(문리 61), 김희주(의대 62), 노영일(의대 62), 문병훈(사대 47), 박준환(의대 55), 배영섭(의대 54), 서상헌(의대 65), 소진문(치대 58), 송순영(문리 52), 송재현(의대 46), 신동화(문리 55), 신석균(문리 54), 안은식(문리 55), 오동환(의대 65), 유동완(수의 68), 이덕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이상일(의대 54), 이승자(사대 60), 이승훈(공대 66), 이시영(상대 46), 이영철(공대 60), 이용락(공대 48), 이정일(농대 57), 이태영(공대 62), 임근식(문리 56), 임이섭(미대 54), 임현재(의대 59), 장세곤(의대 57), 장시경(약대 58), 장윤일(공대 60), 장 홍(문리 61), 정승규(공대 60), 조대현(공대 57), 조형원(약대 50), 차대양(공대 55), 채무원(의대 59), 최병두(의대 52), 최혜숙(의대 53), 하계현(공대 64), 한경진(상대 59), 한의일(공대 62), 함성택(문리 55), 홍혜례(사대 72), 황치룡(문리 65)

애리조나
Arizona

유기석(문리 60), 지영환(의대 59)

앨라스카
ALASKA

윤재중(농대 55), 하인환(공대 56)

오레곤
OR/ID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김영자(간호 56), 이은설(문리 53), 최동근(문리 50), 한국남(공대 57), 한영준(사대 60)

오하이오
OHIO

명인재 (75), 성흥환(수의 75), 송용재(의대 63), 안순자(문리 56), 이계석(의대 67), 이명진(공대 61), 이영웅(의대 56), 장극기(의대 64), 최인갑(공대 57)

워싱턴 DC
DC/MD/VA/WV

강연식(사대 58), 강윤식( ), 강창욱(의대 55), 고무환(법대 57), 공순옥(간호 66), 곽명수(문리),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병오(의대 63), 김선기( ), 김영기(공대 73), 김용덕(의대 53), 김종호(약대 68), 김해식(공대 59), 나영은(가정 86), 남춘일(사대 69), 박영호(공대 64), 박인영(의대 69), 박일영(문리 59), 박홍우(문리 61), 서기병(상대 55), 서윤석(의대 62), 서휘열(의대 55), 석균범(문리 61), 송병준(약대 68), 신구용(공대 59), 안선미(농대 65), 안승건(문리 55), 양광수(공대 73), 오광동(공대 52), 오선웅(의대 63), 오인환(문리 63), 원종민(약대 57)

유덕영(공대 57), 유영준(의대 70), 유홍열(자연 74), 윤경의(공대 57), 이내원(사대 58), 이문항(공대 46), 이영묵(공대 59), 이윤주(상대 63), 이재승(의대 55), 이준영(치대 74), 임창주(공대 55), 장윤희(사대 54), 정계훈(문리 55), 정원자(농대 62), 정평희(공대 71), 조화유(문리 61), 진금섭(약대 57), 최경수(문리 58), 최규식(상대 64), 최정미(사범 55), 한의생(수의 60), 한정민(농대 81), 홍영석(공대 58)

워싱턴주
WASHINGTON

고광선(공대 57), 김교선(법대 54), 김영창(공대 64), 김재훈(공대 72), 변종혜(법대 58), 윤재명(의대), 윤태근(상대 69), 이길송(상대), 이순모(공대 56), 이회백(의대 55), 전병택(상대 65)

조지아
GA/AL/MS

강창석(의대 73), 김순옥(의대 54), 김영서(상대 54), 김용건(문리 48), 김융자(사대 60), 김태형(의대 57), 손종수(의대 56), 안승덕(상대 51), 오경호(수의 60), 유우영(의대 61), 임수암(공대 62), 정량수(의대 60), 정인태(의대 58), 정일화(상대 55), 주중광(약대 60), 최우백(공대 76), 최종진(의대 63), 한 호(상대 62)

중부텍사스
MID-TEXAS

김은영(가정 77), 이영재(상대 58)

필라델피아
PA/DE/S.NJ

강영배(수의 59), 강준철(사대 59), 고병은(문리 55), 김경희(가정 71)

김국간(치대 64), 김규화(상대 63), 김영우(공대 55), 김운옥(간호 76), 김재술(약대 58), 김정현(공대 68), 김진우(공대 62), 김철우(공대 79), 김한중(공대 56), 김현영(수의 58), 문대옥(의대 67), 민흥식(수의 60), 배성호(의대 65), 서재진(공대 47), 손재옥(가정 77), 송성균(공대 50), 송영두(의대 56), 신상재(수의 59), 신성식(공대 56), 신의석(공대 53), 심완섭(의대 69), 안세현(의대 62), 엄종열(미대 61), 오진석(치대 56), 유기병(문리 64), 윤정나(음대 57), 이병인(수의 69), 이상봉(문리 65), 이성숙(가정 74), 이수경(자연 81), 이지영(문리 67), 이지춘(미대 57), 전무식(수의 61), 정덕준(상대 63), 정정수(의대 56), 정태광(공대 74), 정학량(약대 56), 정홍택(상대 61), 조영호(음대 56), 주기목(수의 68), 지재원(사대 68), 지흥민(수의 61), 차호순(문리 60), 최정웅(공대 64), 최종무(상대 63), 최현태(문리 62), 한융오(보건 69), 한인섭(약대 63), 현명억(공대 75)

플로리다
FLORIDA

김중권(의대 63), 문상규(의대 56), 박창익(농대 64), 송용덕(의대 57), 안창현(의대 55), 전영자(미대 58), 최준희(의대 58), 한기빈(공대 52), 홍순호(수의 74), 황현상(의대 55)

캐롤라이나
SC/NC/KY

이달호(사대 46), 이범세(의대 59), 이석형(사대 56), 이항열(법대 57), 한광수(의대 57)

테네시
TENNESSEE

김경덕(공대 75), 서갑식(공대 70)

하와이
HAWAII

김승태(의대 57), 남궁종(공대 52), 장광수(사대 50), 최경윤(사범 51), 최태식(의대 69)

하트랜드
IA/MO/KS/NE/AR/OK

구명순(간호 66), 권준희(가정 87),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김시근(공대 72), 백산옥(문리 52), 이상강(의대 70), 임영신(의대 54), 최은관(상대 64)

휴스턴
HOUSTON

김태훈(공대 57), 김한섭(의대 53), 박석규(간호 59), 박유미(약대 62), 박태우(공대 64), 이규진(약대 60), 이길영(문리 59), 이찬주(문리 63), 진기주(상대 60), 최관일(공대 54), 최성호(문리 58), 탁순덕(사범 57)

광고 및 업소록비 · 기타 후원 동문 (2015. 7 ~ 2017. 6) 제13대 2년동안의 후원금 & 광고비

Tax Exempt - Federal TIN: 13-3859506

후원회비:

남가주
- 고영순(음대 59) 200
- 김 영(수의 63) 500
- 김경숙(간호 68) 200
- 김기형(상대 75) 400
- 김동석(음대 64) 200
- 김병연(공대 68) 300
- 김은종(상대 59) 200
- 김재종(차대 62) 200
- 김종표(법대 58) 400
- 나두섭(의대 66) 200
- 박범순(가정 70) 100
- 박원준(공대 53) 150
- 박자경(사대 60) 200
- 박종수(수의 58) 1,500
- 박창규(약대 59) 200
- 박창선(공대 55) 200
- 백옥자(음대71) 600
- 서 진(간호 58) 500
- 안혜정(가정 77) 100
- 양승문(공대 65) 400
- 염동해(농대 64) 1500
- 위종민(공대 64) 300
- 유재환(상대 67) 300
- 이 청(농대 61) 50
- 이강원(인문 76) 200
- 이건일(의대 62) 400
- 이명선(상대 58) 1,000
- 이범식(공대 61) 200
- 이병준(상대 55) 1,000
- 이정근(사대 60) 100
- 이정복(공대 58) 20
- 이준호(상대 65) 75
- 장정용(미대 64) 100
- 전경철(공대 55) 200
- 전상옥(사대 52) 700
- 전원일(의대 77) 200
- 정동구(공대 57) 300
- 제영혜(가정 71) 300
- 하기환(공대 66) 900

북가주
- 강재호(상대 57) 100
- 강정수(문리 61) 200
- 김윤범(의대 54) 200
- 홍 진(간호 56) 500
- 황만익(사대59) 400

뉴욕
- NY Chapter 2,000
- 강충무(사대 60) 200
- 곽선섭(공대 61) 300
- 권영국(상대 60) 300
- 김기훈(상대 52) 200
- 김명철(공대 60) 200
- 김병숙(보건 64) 200
- 김승호(공대 71) 200
- 김영만(상대 59) 200
- 김진자(간호 60) 200
- 김창수(약대 64) 500
- 김한종(의대 56) 300
- 노용면(의대 49) 400
- 문석면(의대 52) 400
- 민준기(공대 59) 1,200
- 손병우(문리 69) 200
- 신정택(약대 52) 200
- 양순우(법대 67) 20
- 염극용(의대 54) 125
- 윤정옥(약대 50) 400
- 이강홍(상대 60) 500
- 이삼민( ) 100
- 이수호(보건 69) 1,000
- 이운순(의대 52) 450
- 이재랑(상대 61) 500
- 이정복(공대 58) 20
- 이정자(간호 59) 200
- 이준행(공대 48) 1,000
- 이태상(공대 57) 100
- 이홍빈(의대 57) 200
- 정인식(상대 58) 300
- 조아미(음대 51) 200
- 조정현(수의 58) 400
- 주공로(공대 68) 75
- 최한용(농대 58) 200
- 허선행(의대 64) 600

뉴잉글랜드
- 김제호(상대 56) 100
- 김정환(공대 52) 200
- 박종승(의대 56) 400
- 윤상래(수의 62) 2,000
- 정선주(간호 62) 2,000

록키마운틴스
- 송요준(의대 64) 200

미네소타
- 김영남(사대 53) 400
- 김영화(문리 65) 200

샌디에고
- 박우선(공대 57) 200
- 임춘수(의대 57) 400

시카고
- 강창만(의대 58) 100
- 강영국(수의 67) 200
- 구행서(공대 69) 200
- 송순영(문리 52) 500
- 오동환(의대 65) 100
- 이용락(공대 48) 900
- 임근식(문리 56) 200
- 최희수(문리 67) 100
- 조형원(약대 50) 100

조지아
- 김융자(사대 60) 200
- 김순옥(의대 54) 165
- 정량수(의대 60) 50
- 정일화(상대 55) 200
- 주중광(약대 60) 1,000

애리조나
- 박양세(약대 48) 200

오레곤
- 김상순(상대 67) 400
- 김성열(치대 61) 200

오하이오
- 최인갑(공대 57) 400

워싱턴 DC
- 강길종(약대 69) 200
- 권기현(사대 53) 200
- 권철수(의대 68) 400
- 김진수(의대 60) 100
- 박원국(공대 52) 200
- 박평일(농대 69) 600
- 백 순(법대 58) 200
- 변만식(사대 49) 200
- 서윤석(의대 62) 400
- 오인환(문리 63) 200
- 이선구(문리 65) 200
- 이영묵(공대 59) 400
- 진학송(약대 82) 25

워싱턴주
- 고광선(공대 57) 500
- 김동호(농대 58) 200
- 김성열(치대 61) 200
- 이원섭(농대 77) 200

유타
- 김명혜(미대 77) 500
- 김성완(문리 59) 200

필라델피아
- 강영배(수의 59) 75
- 김국간(치대 64) 400
- 김금자(간호 63) 200
- 김순주(치대 95) 200
- 김은숙(약대 53) 5
- 김종휘(약대 54) 200
- 배성호(의대 65) 200
- 손재옥(가정 77) 31,000
- 송영두(의대 56) 400
- 윤정나(음대 57) 225
- 이 영( ) 100
- 이만택(의대 52) 200
- 이성숙(가정 74) 500
- 이지춘(미대 57) 200
- 전무식(수의 61) 200
- 전방남(상대 73) 100
- 정덕준(상대 63) 300
- 정태광(공대 74) 100
- 정학량(약대 56) 460
- 정홍택(상대 61) 200
- 지흥민(수의 61) 400
- 최종문(공대 61) 200
- 한인섭(약대 63) 150
- 현재원(공대 60) 200

캐롤라이나
- 이종영(음대 58) 200
- 한광수(의대 57) 200

플로리다
- 오병훈(문리 44) 200

하와이
- 김승태(의대 57) 400
- 김창원(공대 49) 200
- 최태식(의대 69) 200

하트랜드
- 구명순(간호 66) 200
- 권준희(가정 87) 50
- 김경숙(가정 70) 300
- 김시근(공대 72) 200
- 이상강(의대 70) 5,000
- 이은미(자연 83) 200
- 최은관(상대 64) 500

휴스턴
- 진기주(상대 60) 200
- 채희순(동문 처) 200
- 최완주(공대 83) 200

Brain Network 후원금:
- 김은종(상대59) 200
- 윤상래(수의62) 200
- 한재은(의대 59) 500
- 손재옥(가정 77) 3,000

모교발전기금:
- 강재호(상대 57) 200
- 김순덕(간호 61) 500
- 김시근(공대 72) 300
- 박석규(간호 59) 5,000
- 박종승(의대 56) 100
- 성흥환(수의 75) 200
- 이원섭(농대 77) 100
- 임영자(간호 61) 500
- 임천빈(문리 61) 100
- 정명숙(간호 61) 500
- 정일화(상대 55) 50
- 정창동(간호 45) 100
- 차기민(공대 85) 200

종신회비(한번이상):
- 오인석(법대 58) 3,000

Education(장학금):
- 손재옥(가정 77) 2,000
- 서동영(사대 60) 500
- 이근일(의대 62) 150
- 제영혜(가정 71) 1,500

Charity(나눔):
- 손재옥(가정 77) 2,000
- 윤경숙(문리 59) 3,000

Golf 후원금:
- 이전구(농대 60) 500
- NE Chapter 100

기타:
- 김영실 100

업소록 광고:
- 강호석(상대 81) 480
- 계동휘(치대 67) 240
- 김기택(수의 81) 240
- 김도명(농대 70) 240
- 김성래(치대 76) 240
- 김순옥(의대 54) 240
- 김순주(치대 95) 240
- 김원탁(공대 65) 240
- 김일영(의대 65) 580
- 김재영(농대 62) 480
- 김창수(약대 64) 240
- 남욱현(경영 84) 240
- 박종효(의대 79) 240
- 박희진(농대 78) 240
- 서동영(사대 60) 240
- 석창호(의대 66) 480
- 손재옥(가정 77) 480
- 신동국(수의 76) 340
- 엄달용(공대 69) 240
- 이경림(상대 64) 240
- 이병준(상대 55) 480
- 이상대(농대 80) 120
- 이수호(보건 69) 240
- 이영일(문리 53) 400
- 이재덕(법대 60) 240
- 이재원(법대 60) 200
- 이종묘(간호 69) 480
- 이준영(치대 74) 200
- 장 준(문리 85) 240
- 정재훈(공대 64) 480
- 정지선(상대 58) 240
- 정진수(공대 56) 240
- 주기목(수의 68) 480
- 최무식(약대 66) 240
- 최종문(상대 61) 240
- 하선호(치대 81) 240
- 한상봉(수의 67) 240
- 한태호(인문 75) 480

디자인 광고:
- 김광호(문리 62) 12,000
- 김기택(수의 81) 200
- 김도명(농대 70) 400
- 김영민(농대 72) 1,000
- 김인종(농대 74) 1,000
- 김창수(약대 64) 300
- 김혜정(문리 82) 6,400
- 남가주합창단 1,000
- 노명호(공대 61) 1,000
- 미주대단 700
- 분당서울대병원 400
- 서치원(공대 69) 1,000
- 신규천(상대 73) 400
- 유재환(상대 67) 1,000
- 윤상래(수의 62) 400
- 이승훈(상대 74) 1,800
- 이전구(농대 60) 4,500
- 임낙균(약대 64) 1,500
- 차민영(의대 76) 1,000
- 최정웅(공대 64) 500
- 한스여행사 300

Website 광고:
- 김혜정(문리 82) 500
- 듀오 500
- 손재옥(가정 77) 500
- International, Inc. (이원로) 500
- JG Business Link 500
- KISS 500
- K-Shopping 500

동창회비 2017. 7 ~ 2018. 6

남가주
S.CA/NV

강영호(의대 57), 강희창(공대 57), 권기상(상대 72), 권처균(공대 51), 김규현(법대 53), 김성복(공대 50), 김성환(의대 65), 김순길(문리 61), 김익창(사대 52), 김일영(의대 60), 김현황(공대 64), 문동수(공대 73), 민병곤(공대 65), 박일우(의대 70), 박찬호(농대 63), 유석홍(음대 66), 유재환(상대 67), 이건일(의대 62), 이소희(의대 61), 이원익(문리 73), 이정희(음대 55), 이준호(상대 65), 임동규(미대 57), 정예현(상대 63), 조동진(의대 59), 조순자(치대 57), 조임현(간호 72)

북가주
SAN FRANCISCO

손창순(공대 69), 이관모(공대 55), 최경선(농대 65)

뉴욕
NJ/NY/CT

강영선(공대 50), 김동환(약대 56), 김봉련(사대 54), 김성현(약대 65), 김용술(상대 56), 김종현(법대 57), 김진자(간호 60), 박순영(법대 56), 방준재(의대 63), 배명애(간호 47), 성기로(약대 49), 손갑수(약대 59), 송영순(사대 60), 유영호(의대 52), 윤영섭(의대 57), 이태상(문리 55), 임공세(의대 61), 전성진(사대 54), 주공로(공대 68), 최영태(문리 67), 허경열(의대 73), 허병렬(사대 42), 허선행(의대 64), 홍정표(음대 67)

뉴잉글랜드
MA/RI/NH/ME/VT

김정환(공대 52)

록키마운틴
MT/CO/WY/NM

송요준(의대 64)

미네소타
MINNESOTA

왕규현(의대 58)

시카고
IL/IN/WI/MI

강영국(수의 67), 오동환(의대 65), 유동환(수의 68), 이갑조(간호 51), 이시영(상대 46), 한의열(공대 62)

오하이오
OHIO

최인갑(공대 57)

앨라스카
ALASKA

하인환(공대 56)

워싱턴 DC
DC/MD/VA/WV

이재승(의대 55), 고무환(법대 57), 박일영(문리 59)

워싱턴주
WASHINGTON

이순모(공대 56)

조지아
GA/AL/MS

김용건(문리 48)

중부텍사스
MID-TEXAS

박태우(공대 64), 진기주(상대 60)

필라델피아
PA/DE/S.NJ

강영배(수의 59), 문대옥(의대 67), 전무식(수의 61), 정정수(의대 56), 조영호(음대 56), 한인섭(약대 63)

플로리다
FLORIDA

전영자(미대 58), 황현상(의대 55)

감사합니다.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1년 75불)와 각종 후원금으로 동창회보가 발행되며 미주 동창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이영일(문리대 53)
Howard Y. Ree
3700 Wilshire Blvd., Suite 25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760-3700 Fax: (213) 383-2515
email: howardree@gmail.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P.O. Box 189,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내)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172 Main Steet Fort Lee, NJ 07024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내과

뉴저지 왕내과
Kyu S. WANG, M.D.
왕규성
Tel. (201) 224-6800
1033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oor 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재진 심장내과
Rhee, Jai Jeen, M.D.F.A.C.C.
이재진 (의대 58)
Tel. (718) 426-6464
37-25 75th Street, Jackson Heights, NY 11372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산부인과

정산부인과 전문의
Joseph Chong, M.D.F.A.C.O.G.
정조셉
Tel. (201) 461-5770
44 Sylvan Ave. #2-A, Englewood Cliffs, N.J 07632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민재홍 소아과
Jae Hong Min, M.D., P.C.
민재홍
Tel. (718) 353-5300
34-09 Murray St #1fl,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렬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효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o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쉽으로 어느곳이든 아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지부 :
주소 :		전 주소 :		
업소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일반광고	특별후원금
☐ 연 $200 ☐ 연 $500 ☐ 연 $1,000 ☐ $_____	☐ $75 (1년: 2016.7~2017.6) ☐ $75 (1년: 2017.7~2018.6) 1년: $75 / 2년: $150 ☐ 종신이사회비 ($3,0000이상)	☐ $240 (2016.7~2017.6) ☐ $240 (2017.7~2018.6) 1년: $240 / 2년: $480	*문의: 사무국 484-344-5500 Ext 302 Email: general@snuaa.org	☐ Education (장학금) ☐ Charity (나눔) ☐ Brain Network 후원금 ☐ 모교발전기금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a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SNUAA-USA'

Visa ( ) Master ( ) American Express ( ) 기타 ( )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귐)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흥조(치) · 이영묵(공) · 이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종(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		
고문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심회진(음)	사업국장	한중희(공)
조직국장	백옥자(음)	섭외국장	박형준(공)
재무국장	이성숙(가정)	특별사업국장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Webmaster)	김원영(미)	사무장	서경희

회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편집위원장	김정현(공)	주필	정홍택(상)

편집위원 | 김진우(공) · 심회진(음) · 이상봉(문) · 이성숙(가정)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지재원(사) · 한정민(농)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억(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 이혜림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헌(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헌(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언(법) · 함은선(음)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각 지역 지부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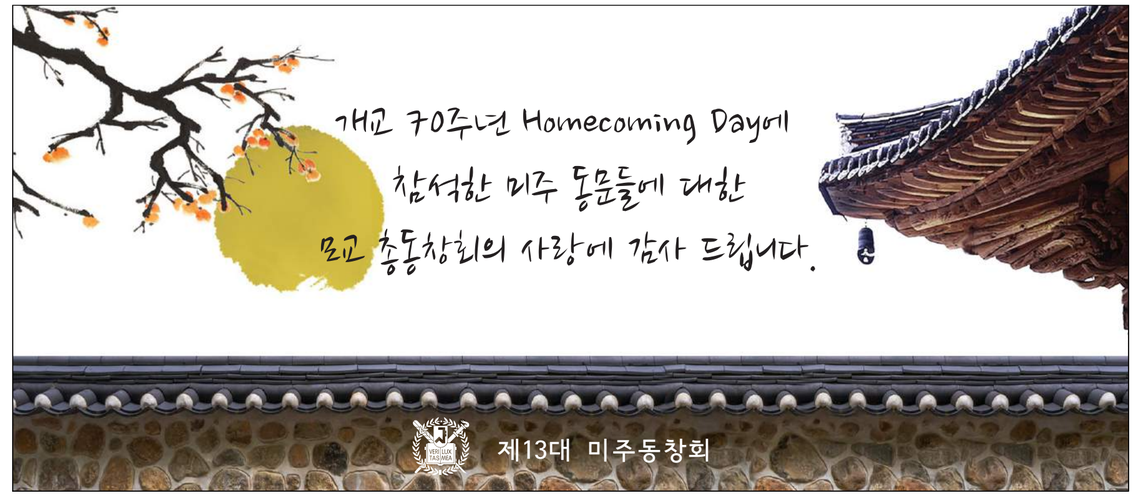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607	byeongk@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북가주 SANFRANCISCO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종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net	
뉴욕 NY/NJ/CT	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이대영(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정태영(문리 71)	978,908,0196	chungty1@snu.ac.kr	Jul-Jun
	차기회장				
달라스 LA/DALLAS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4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황효숙(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최흥수(자연대 87)	858,342,0245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시카고 IL/IN/WI/MI	회장	정승규(공대 60)	773,562,0677	s_jung@att.net	Jan-Dec
	차기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경영 77)	402,631,3567	jh.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헌민(공대 84)	425,444,3899	mrmsft@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ul-Jun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강창석(의대 73)	770,825,1004	kangs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이상엽(공대 85)	770,622,5163	duluthcpas2@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최정웅(공대 64)	484-467-7609	jungwoongchoi@gmail.com	Jul-Jun
	부회장	박혜란(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윤기향(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sbaek2@utk.edu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mpcsg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장영준(농대 83)	913,544,2933	yjcdds@gmail.com	
휴스턴 HOUSTON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www.nmbonline.com

고객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은행의 문턱이 높으시다구요?
뉴밀레니엄뱅크로 오십시요.
SBA Loan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최인진 (인문대 75)
백승원 (의대 79)

New Millennium
BANK

Head office&Fort Lee Corp Branch
222 Bridge Plaza S.4th Fl.
Fort Lee, NJ07024
T.201.585.6090
F.201.585.6095

New Brunswick Branch
57 Livingston Ave.
New Brunswick, NJ 08901
T. 732. 729. 1100
F. 732. 729. 4399

Franklin Township Branch
464B Elizabeth Ave.
Somerset, NJ 08873
T. 732. 805. 3901
F. 732. 805. 3909

Fort Lee Branch
1620 Lemoine Ave.
Fort Lee, NJ 07024
T. 201. 944. 1110
F. 201. 944. 1165

Bayside Branch
209-2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T. 347. 836. 4914
F. 718. 229. 1879

* Owner occupied and operated; legally organized for profit and within the guidelines designated by the SBA; applicants generally not able to receive conventional credit under rea onable terms. All SBA loan application must meet both SBA and New Millennium Bank's lending guidelines. New Millennium Bank's minimum loan amount is $50,000. Approved to offer SBA loan products under SBA's preferred Lender/Express programs Contact our SBA loan officers for detail and franchise eligibility.

MEMBER FDIC EQUAL HOUSING LENDER

SBA Preferred Lending Program PLP LENDER